

東大新聞

『全通』 생각이 온전하면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상달하면 마음 또한 산란한 것. 지혜로우면 상된 생각 일지 않고 생각이 바르면 드디어 도를 이루리. <法句經·도행품308장>

발행주최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편집: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발행: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인건: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이송: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제 1021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 3호우원발(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9년(단기4322년)5월10일(수요일) [1]

젊은 자유여! 기대한 진리로 숨쉬거라



동국83년 지금 우리는... <本社 사진부>

먼 미래의 천년속으로

文 貞 姬 <同門 詩人>

거대한 진리로 살아 숨쉬거라.
 용과도 같이
 번쩍이거 비를 들 단
 산파처럼 중용의 열매를 세우라
 먼 미래의 천년속으로
 우리모포 댈지어어!
 절경한 날개를 파투고 있느니
 단호히 아너! 들 의천을 보 앞면이들
 일면 채를 던져 놓고
 황사 바람이 잡기우면
 이 땅의 시계 바늘에

그러나
 드락
 시인과 역사의 주역들이 자라나는
 언제나 풀 뜯을 하늘이 노히 내려와
 젊은 자유의 날개들이요
 모든진리도 투명한 우리 영혼이요
 고통과 장엄, 그리고
 슬랑기 처럼 퍼져 갔느니
 부처님의 땅이 노락
 그 종소리 울릴 때 마다
 순의(純銀)의 향 하나 새로 걸었느니
 그의 한 판 산 줄을 받아 래 두르느니
 이 나라 서울 학가운데
 여는 세 해전
 수천의 새들이 날고 있었으니
 오늘도 누구신 날개라
 우리 동국대학교에
 땅 위에서 가장 새로운 시련이 있느니,
 땅 위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이 감촉이

개교83주년 기념시

“대학신문이 법정에머뭇뭇 누워있구나!”

정원식 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난 3월말 중간평가 유보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이 제민주세력에 가하고 있는 일련의 언론 탄압 책동을 주시하며 모든 국민은 6공화국이 5공화국과 다를 바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는 현대 노동자 파업투쟁의 대한 폭력진압, 분의환 무사와 이영희교수의 구속 및 전민련에 대한 전면적 탄압 등에서 의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간 기성언론을 이영희와 체반 민주세력의 요구와 주장을 좌경·유망 및 좌우 이념대결로 왜곡·선전해온 바 있는 현 정권은, 최근들의 동의대 사건 이후 대항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내에서도 보-현 대결의 논리를 이식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문교당국이 35개 총학생회의에서 발표한다 있는 지지 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문교당국의 지지 사항 가운데 『대학간행물의 편집·제작권을 오는 20일까지 학생들에게 일임하고 일체의 사법적 책임을 학생에게 지우도록하라』는 내용의 언급을 접하고나서 우리 전국대학신문기자 일당은 심료 문교당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권차 문교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 한다.

첫째, 우리는 대학신문이 갖는 진보적·비판적 성격이 대학사회가 갖는 보편적 성향에서 발현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이번 지지는 대학신문이 내재적으로 갖고있는 대사회 비판적 성격과 역할을 그토대로 불쾌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 행위가 아닌가?

둘째, 최근 일련의 강경기류 속에서 취해진 이번 지지가 문교부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것이 공적으로 제민주세력 및 학생연맹을 탄압하려는 배후 공안당국의 의해 취해진 결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교부내 학원 탄압 및 학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가?

셋째, 장년말부 대학신문기자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자기비판을 수행하면서 대학내 각 구성원의 의사와 이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각종 변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대학신문의 자기통제의 기능을 무시한채 「관공의 선전지」 운운하며 대학신문을 백안시하는 근원적의가 무엇인가?

네째, 각 대학별 토양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가관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대학인의 대학신문을 화신신음으로 지위경시시키겠다는 입방정 「지시」는 대학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 발상이며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 및 교권의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를 인정, 정서사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 전국대학신문 기자 일당은 이번 문교부 지시가 학원,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정한 대학내 대학신문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예고하는 정조가 아니라 자유로운 그 존재로서 살고 있는 대학사회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적 도전행위라고 간주하며, 이상의 정권의 대학의 정권차 문교부 장관은 오는 15일까지 공식적으로 해명, 답변해줄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 대학 신문기자 연합회

1989년 5월 10일

社說

민족사학의 전통 드높이자 개교 83주년 기념일을 맞아

건국 83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동국대학교는 오늘 개교 기념일을 맞아 감회가 벅하다. 회고해보건대 光武10년(1906)년 5월 8일 大韓帝國內務部로부터 인가를 얻어 명진학교로 개교한 이래 불교사범학교·불교고등학교·불교중앙학원·불교전문학교·중앙불교전문학교·해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로 그리고 오늘날의 동국대학교로 면면히 발전해온 우리학교는 불교의 근대화를 물론, 이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던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이 강제 체결된 다음 해인 8월 1일 일제강점기로 나라를 빼앗기기 4년 전 해에 우리학교는 민족사학의 기치아래 개교된 것이다.

이러한 기념하는 역사의 격동기에 한해 한문은신상은 이 학교와 인연을 맺게된다. 일생을 시인으로 독립투사로 불상으로 보내면서 이 땅에 크나큰 족적을 남긴 안해선생은 분명 우리의 스승이고 선배이며 이 민족의 선구자이다. 1919년 3·1 독립선언은 백용성 스님과 함께 불교계의 대표로 단세삼장을 주도하였다.

이와같이 민족사학으로 출발하여 일일이 매겨왔수 없을 정도로 재재다사를 이 사회에 배출하였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인

재 배출에 매진중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역사와 전통이다. 우리학교는 83년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전통이란 지속성과 현재성과 미래지향성이 전제될때에만 그값을 받는 것이다.

지난날의 화려한 전령만 앞세우며 오늘의 무사안일을 추구할은 금물이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거쳐야 할 매듭이 있는데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전통사회의 관·훈·상·제로 규범과 해를 주고 중요한 의례행사를 치루어 이를 기념 또는 추념하곤 한다.

오늘 교회를 훨씬 넘고 米壽를 5년남짓 눈앞에 두고, 여러가지 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1백주년, 2백주년을 나타내며 미래를 설계하는 길로 본다.

지금 우리는 개교 당시와 다를 바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대학발전 계획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족사학」의 공지와 더불어 세계적인 「정신문화대학」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국혼란은 누구의 책임인가 대학내 공권력 투입은 민주포기

최근 집권세력에게 벌어진 민주세력에 대한 강경일변도 정책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학원연합은 동의대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땅의 학생운동은 독재와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의 촉매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때문에 집권세력의 학원연합양상은 정권의 속성이 불분명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은 정치권의 민주화분단조작의 희생, 학내민주화에까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투쟁과 학내민주화투쟁의 결합이 진행되고있는 터였다. 이번 동의대사태는 교내까지 무차별로 진입한 속칭 백과단의 무분별한 과잉집안이 이 기시경 결과였다. 경찰이 학생들과의 협상에 보다 진지하게 나섰더라면 이번 같은 큰 희생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현 정권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대학에 대한 대타입과 여론호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오늘의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는 복인내 채 과정적역면담단면되고 풀이하며 강경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화염병제조 및 폭력행위를 꾀하는 자질이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학원

이나 노사현장이거나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는 집권층의 발언은 5공청산과 민주화작업은 접어둔채 지지 기반이 약한 정권의 유지에 관한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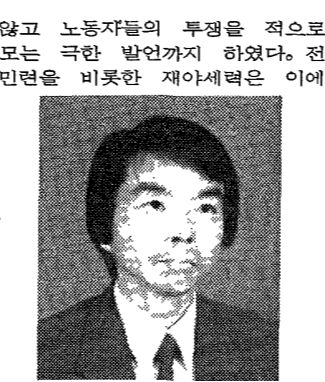
오늘의 정국혼란이 민주화의 기대에 못미치는 정부와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태도에 있음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학내민주화요구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대학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정국혼란을 한층 가열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한다. 우리의 대학,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파생되는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량을 지니고 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분규사건의 실마리는 집권세력의 강경포악에 있는것이 아니라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에 달려있는 것이다. 설혹력있는 강경책을 반대급부라도 그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집권세력은 이번 동의대 사태의 정치적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에 열광하고 있는 정권에 열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도 이제 비폭력 평화시위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공권력은 정권으로부터의 폭력이다. 학생들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노력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4월30일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메이데이 집회)가 원천봉쇄되었다. 이날 집회가 원천봉쇄된 것은 일련의 반노동자적 정책, 노동운동 탄압책의 일환이지만 특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봉쇄한 것은 현정권이 개정된 법을 스스로 불법한 것으로 파소권력의 본성을 뚜렷이 확인시켜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맹휴업통해 노·학 상호신뢰 확대



정태윤 <진보정치연합 공동대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배양되었던 메이데이를 피할 수 없었다. 현 정세의 양면과

그리고,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노동자가 주축이 되고 학생·재야단체·시민들의 연대투쟁은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또한 투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5월1일 공강의 직접적인 투쟁으로 확대되었으리라 마산·장원의 투쟁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는 우리 노동운동의 역역량이 정부의 탄압에도 위축되지 않고 진출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속에서 우리는 반파소투쟁의 주역으로 노동자계급이 선포에 나설 그 날이 참으로 가까이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동맹휴업」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 연대했던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87년 당시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불신했으며, 학생들이 투쟁을 지원하는 것에 의혹

을 품고 있었다. 울산 현대중공업 투쟁에서 노학연대의 중요성은 노동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던 바이다.

메이데이를 앞둔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이를 통해 노동자가 학생들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갈 가능성을 확대시켰을 것이며, 학생대중의 노학연대의식과 고취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올해들어 학생운동은 학원내의 문제—특정 인사 반대, 총장직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운동은 학원내의 민주화를 위한 독자적인 투쟁영역이 분명 존재하고 전체 민주화운동에서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던 것.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위공정내의 투쟁이나 조한주의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것처럼 학생운동도 전체 민주화운동의 광범한 해심과제

현재의 탄압국면은 27년간 지속되어 온 독재와 억압을 청산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광범한 열기에 독재·기득권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반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각종 민생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의 탄압과 동의대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것, 한계제시문을 비롯한 언론탄압과 여론조작 등은 문제의 미봉일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점차 더욱 증폭되어 결국 파국으로 나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5공화국의 모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민주개혁과 법치정비, 관주학살자의 처벌등이 선행되어야만한다. 담국이 갈수록 통해 공권력을 강화한다는것은 적반하장임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세는 분명 헌권력을 비롯한 특권 세력이 탄압의 주도권을 잡고 민주화의 대세를 잡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메이데이 집회에서 확인된 바처럼 성장하고있는 노동자들의 역할은 결코 잠들 수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 의식의 자각과 연대의식의 함양, 그리고 실질적인 연대력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민주화추세는 몇가지 사건을 이용한 현정부의 이해를포기 공세로는 막을수 없을만큼 필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민중들의 피어난 투쟁의 정신이 살아있는 5월, 우리는 헌권의 가장 약한 고리인 광주 5공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당한 투쟁을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일단 여러 정황에 의해 다시 불리는 불씨로서 의미의 있을것이며 일시에 보성·전투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생운동의 함양은 전체 민주화운동의 역할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투쟁발함과 역량의 결집 속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정에서 현 상황의 위기와 탄압의 본질을 함께 찾아보는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간단히 적어보도록 한다.

공권력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 학생운동,역량 결집이 중요

제인 노동운동탄압분쇄, 민주운동탄압분쇄의 기치를 들고 노동자계급의 총역량을 결집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민주운동의 주도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동운동이 87년 7·8월 투쟁과는 달리 조합적 차원을 뛰어넘어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이를 무감각 짓밟아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진출을 절대 허용치 않고, 이를위해 폭력적 탄압을 계속 강화시키며 나가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을 가졌고 설사 학생들이 불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연대가 오히려 노동자투쟁의 순수성을 해쳐 현실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노동자대중의 대척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제 계급·계층의 속성을 깨닫고 우호적인 연대적 태도를 깨달고 우호적인 연대태도를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제 민주세력과 연대해야 하는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 조직력과 전투성이 높은 학생대중의 중요성을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민주화운동에서 아직은 학생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력·진언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노동자대중의 대척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제 계급·계층의 속성을 깨닫고 우호적인 연대적 태도를 깨달고 우호적인 연대태도를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제 민주세력과 연대해야 하는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 조직력과 전투성이 높은 학생대중의 중요성을

부분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학교측이 약속한 소비자협조조합 건설사업 지원의 수준에서 학교당국을 수용하고 학생들이 건설의 주체로 우뚝서야 할 것이다. 주권인 자제로 복지투쟁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복지투쟁건설의 새 장을 개척하자.

백인승 <동대 농학과>

복지향상

소비조합 건설이 과제

대학은 새로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에 연구하는 곳이며,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학은 전

복지사업

책임소재 불명

이 글에서는 경제적 관계 재정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대학에서 교수·학생의 연구자격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제반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대학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복지사업이라 했을 때 이사업의 책임소재는 당연히 학교당국이라 할 것이다. 동에서는 복

복지사업

책임소재 불명

페소비문화를 지양하고 민족적이며 민중적인 건전한 새 문화를 창조발전시키는 것은 매진과목직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대학이 받아야 할 학교강화책 확보를 위한 원내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쓰는 것 이외에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복지위원회가 복지사업

복지사업

책임소재 불명

을 가졌고 설사 학생들이 불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연대가 오히려 노동자투쟁의 순수성을 해쳐 현실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노동자대중의 대척점이었던 것이다.

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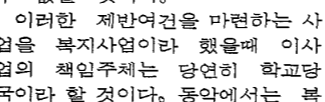
책임소재 불명

부분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학교측이 약속한 소비자협조조합 건설사업 지원의 수준에서 학교당국을 수용하고 학생들이 건설의 주체로 우뚝서야 할 것이다. 주권인 자제로 복지투쟁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복지투쟁건설의 새 장을 개척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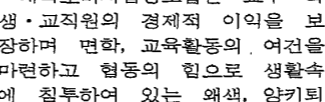
한에 기초해 볼때 현재 사람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소비향락적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인 공동체 의식을 피워낸 인간관계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시대적 사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의 시대적 사명을 기초해 볼때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학생·교직원들은 공동체적 인간관계 건설의 정치사상적 기



한에 기초해 볼때 현재 사람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소비향락적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인 공동체 의식을 피워낸 인간관계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시대적 사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의 시대적 사명을 기초해 볼때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학생·교직원들은 공동체적 인간관계 건설의 정치사상적 기



한에 기초해 볼때 현재 사람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소비향락적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인 공동체 의식을 피워낸 인간관계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시대적 사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의 시대적 사명을 기초해 볼때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학생·교직원들은 공동체적 인간관계 건설의 정치사상적 기



한에 기초해 볼때 현재 사람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소비향락적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인 공동체 의식을 피워낸 인간관계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시대적 사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의 시대적 사명을 기초해 볼때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학생·교직원들은 공동체적 인간관계 건설의 정치사상적 기



한에 기초해 볼때 현재 사람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소비향락적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인 공동체 의식을 피워낸 인간관계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시대적 사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의 시대적 사명을 기초해 볼때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학생·교직원들은 공동체적 인간관계 건설의 정치사상적 기

동국대학교대학원 학생모집요강

198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모집과정 및 학과
 - 가. 석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조경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신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 나. 박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교육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2. 시험과목
 - 가. 석사학위과정
 - 1) 시험과목: ①영어(영문과만)수술고사
 -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수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 나. 박사학위과정
 - 시험과목: ①영어 ②학과공통과목 ③전공과목 ④제2외국어(만)수술고사
 -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이며, 전공시험은 학과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수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 ※제2외국어부과과목: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한의학과
 - ※제2외국어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일어, 한문, 중국어중택일(단, 불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국민윤리학과에 한함)
3. 시험일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9년 5월 29일(일) ~ 5월 31일(수)까지
 - 나. 접수장소: 본대학원 교학과
 - 다. 시험일시 및 장소: 1989년 6월 9일(금) 10:00 동국관

대학원 연구논집 논문모집

본대학원 89학년도 대학원 연구논집(제19집)을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논문집명칭: 동국대학교대학원 연구논집(제19집)
 2. 투고대상: 본 대학원 교수,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3. 원고매수: 700자외로 36매 내외(영문 요약 및 도표포함)
 4. 원고제출부수: 원본포함 4부
 5. 논문모집기간: '89.6.1(목) ~ 8.31(목)까지
 6.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
- 기타 상세한 것은 대학원교학과(직통 275-3256. 교환2253·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89년 5월 일
- 대학원장

공고

1989학년도 계절수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수업기간
 - 가. 학점 인정 과목: 1989년 6월 26일(월)~7월 18일(화) (16일간) 예정
 - 나. 학점비인정 과목: 1989년 6월 26일(월)~7월 24일(월) (20일간) 예정
 2. 개설대상과목 및 기준인원 (수강료)

구분	개설대상과목	개설기준인원	수강료
학점 인정과목	1989학년도 1, 2학기 전공과목(단, 교육실습, 현장실습 제외)	10명 이상	1 학점당 32,000원
학점비인정과목	영어 회화(영어 회화(경주캠퍼스개설))	30명 이상	각과목당 15,000원
 3. 수강신청
 - 가. 수강자격: 1989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으로서
 - ①조기졸업 희망자
 - ②재수강자(해당과목 과락(P)자)
 - ③학점교류 희망자(서울·경주캠퍼스간)
 - ④일반선택희망자
 - 나. 신청방법: 총 6화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수강신청
 - ①기간: 1989년 5월 10일(수)~5월 17일(수) (6일간)
 - ②교부및접수처: ①학점인정과목...교과과, 이무대학교과과 ②학점비인정과목...국어교육원
 - ③개설과목 확정날짜: 1989년 5월 24일(수)
 - ④수강신청 변경날짜: 1989년 5월 24일(수)~5월 25일(목) (2일간)
 - ⑤수업시간표발표: 1989년 6월 12일(월) 예정
 4. 성적처리
 - 가. 이수과목 성적은 최고 B+로 평가한다
 - 나. 조기졸업희망자 및 일반선택자의 성적은 최고 A+로 평가한다
 - 다. 학점비인정과목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장학생선발 및 학사진적에는 무관함
 - 마. 취득학점이 과락(F)인 경우에는 학적부에 등재하지 않는다
- 1989년 5월 10일
- 교무처장

동국대학교

1989년 5월 10일 교무처장

개교 1백년 향한 힘찬진진

李 총장 "학문탐구-끝없는 대화로 질적 발전을 90주년 향한 「동국컨벤션 센터」 건립안 발표

「개교 83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 11시 李 龍範 총장, 黃 軫 經 이사장, 鄭 在 哲 총장회장을 비롯한 학생, 교직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成 芝 敏 총무과장의 사회로 삼귀의례, 李 泰 敬(선하) 정각원장의 학교발전 위한 발원문 봉독, 金

維 鏞(형정학) 기획조정실장의 학교연혁보고, 장기근속자 공로패 및 기념품 수여, 총장 기념사, 이사장 고사 및 동창회장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李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국의 울타리 아래 모든 동국인이 기존의 원칙과 새로운 학문의 연구, 끝없는 대화로 개교 1세기를 향해 힘차게

진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黃 이사장은 「불교이념에 입각한 자유정신을 지향하고 민족민주교육에 이바지해온 동국은 대망의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질적발전과 도약이 요구되는 시기에 있으며 모두가 화합된 단결과 각자의 소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발전의 밤

「동국발전의 밤(동국대학교 개교83주년 기념단원)」이 지난 6일 오후 6시 李 龍範 총장, 黃 軫 經 이사장, 鄭 在 哲 동창회장장을 비롯한 교수, 동문들 1백여명이 참석하곤 호텔 로열(1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단원에 앞서 尹 贊 普(전자공학) 총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李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발전은 위해 전통국민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교90주년을 향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기념관인 동국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黃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통국민이 일심협력해 동국발전의 뜻을 모으자」며 「재단은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동국발전에 앞장 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鄭 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이 제시한 발전계

○제2533돌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등행렬」이 지난 7일 오후 5시 본교생 2백여명과 비록, 신도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했다.



"불교도가 앞장서 민족통일 이룩하자" 제등행렬·법요식등 佛誕節 각종 행사

佛紀 2천 5백33주년을 맞아 불탄기념행사가 교내외 일원에서 활발히 열리고있다. 제 2천 5백33돌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등행렬」이 지난 7

일 오후 5시부터 본교생 2백여명과 비록, 신도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약 8km의 구간에서 걸쳐 거행했다.

이날 제등행렬에서 본교생들은 대령白像과 연등 7백여개를 앞세우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송고한 뜻을 기념했다.

邪鬼이 正風인양 오해되고, 중생이 보살로 분간하고, 암흑이 광명인양 우물대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의 지성이란 것이 알기까지 한 세상이 되어가고있다. 차리리 서투른 지성이 없는 산천초목이나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더 부럽다 싶은人間嫌惡의 우물증을 자아내는 계절이다. 이 심상한 생명의 계절을 죽음의 계절로 만들고 있는 인간심성에 문제가 있다. 佛敎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肝要한 과제로 삼고있는 가르침이다. 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 보살이 光明의 경이이다. 보살이 光明의 경이이다. 중생은 暗照의 존재인데, 하나는 모든 것을 밝고 따스하게 비치고 감싸며 보살있는 삶을 살게

을 맑고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도록하며 아도에 떨어진 자에게는 울바라 가르침으로 향하는 정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생사의 세계에 애착하는 자에게는 정법을 가르쳐 마음을 갖게 하고 離塵이나 緣覺과 같이 전통과 인습에 사로잡혀 형식을 고집하거나 상아탑에 틀어박혀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려는 자에게는 一切를 열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깨달도록 하라는 크나큰 소원을 갖게 한다.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이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이요. 이것이 보살이요, 이런 마음이 보살의 광명이야. 李 箕 永

보수

보살의 光明

만족하려는 자에게는 一切를 열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깨달도록 하라는 크나큰 소원을 갖게 한다.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이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이요. 이것이 보살이요, 이런 마음이 보살의 광명이야. 李 箕 永



○본교 박영석(체교3)씨가 히말라야산맥 랑시사리 1, 2봉 단독등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학교측은 당초 이번 행사를 위해 호텔사용료로 일

랑시사리봉 국내최초 등정 박영석군 단독으로

본교 박영석(체교3)씨가 히말라야산맥 단독등반으로 4월17일부터 20일까지 사흘만에 랑시사리 1봉(해발 6천 1백45m), 2봉(해발 6천 4백27m) 등정에 성공, 동국인의 기상을 전세계에 떨쳤다.

박군은 지난 4월17일 오전 해발 4천 5백m에 설치된 베이스캠프를 출발, 오후 3시30분경 눈보라를 뚫고 2봉을 먼저 등정한후, 지난20일에는 1봉등정에 성공했다. 한편 랑시사리봉은 히말라야산맥중에서도 수직폭포차가 2천m에 달하는 난코스인 이번 등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야구부 출전

본교 야구부가 지난 8일

오는 30·31일 총학 선거

경주 학생회칙 개정으로 6개월 임기

경주캠퍼스 제 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여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30일, 31일 양일간 실시된다. 지난달 12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6월선거에서 11월선거로 개정되어 6대 총학생·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이며 지난 9일 중선위(위원장=김동선·중문4) 발표에 의한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특을 필하고 학생 1백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한다. 또한, 임기는 인문대 상경대가 1학기(6개월)이고 자연대, 상경대가 3학기(18개월)로 결정됐다.

이창복کم 연행

민정당사 습격관련 경주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이창복(국문4)군이 지난 8일 오후 5시 상공회의소(경주캠퍼스 동부동) 후원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정기 학생총회 무산

정족수 미달 「학원자주화·노퇴진결기」로 대체

지난 3일 개최예정인 89학년도 1학기 정기학생총회가 학생 1천 7백여명이 참가, 정족수 미달로 연기되었다. 한편 이날 모인 학생들은 오후 2시 도서관에서 「학원자주화·노태우 퇴진」을 위한 중앙인 3차 총학기대회를 갖고시국대처방안을결의했다. 이날 대회는 부총학생회장 윤원형(국문4)군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군은 대회를 통해 「노태우 퇴진」을 문과사 방북이후 애국민주체제를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의 계절 5월을 맞아 노태우 처단투쟁에 매진하자」고 밝혔다.

로 이어지는 반미·조국통일 투쟁의 준비작업에 총심해야 한다」임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회가 끝난 오후 3시30분경 학생들은 「무슨

수습기자 추가 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어둠과 혼란의 時代를 여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경주캠퍼스 0명 ②응시자격: 1學年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정기자 ④제출서류: 筆跡 寸정당시 1통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⑤원서접수: 서울·경주 5월 18일 오후 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경주 5월 18일 오후 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직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漢陽館 1201 (서울캠퍼스) 원로동 A301 (경주캠퍼스) ※합격생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차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5월 3일 동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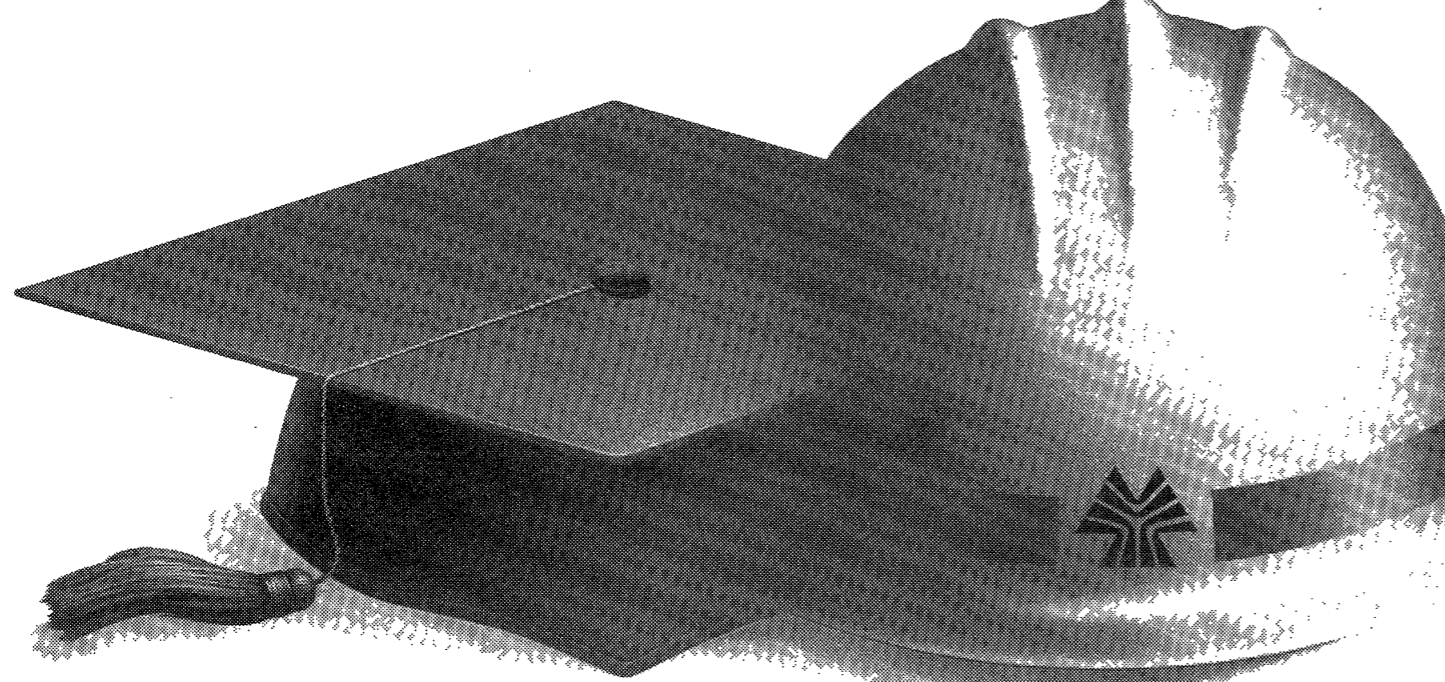
경주 壬石한마당

오는 17~20일 각종 행사준비 활발

경주캠퍼스 「壬石한마당」이 「5월 그 가슴위로 함께 안아주자」를 주제로 17일부터 20일까지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의 일정을 보면 첫날인 17일 대형결구그림 게시 및 고사, 개막식, 입학자교제들이 열리고 둘째날인 18일에는 5·18 기념제, 민중문화운동연합 발대식, 연홍제

가, 오는 19일에는 전통혼례, 민속놀이 5종경기, 연꽃제 등이, 마지막날인 20일은 경주시민 학생 한마당과 백상연 등의 행사가 있게된다. 한편 축제준비위원회는 지난날 28일 김동선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학기획, 홍보, 문화, 총무부장과 각단대학생회 기획부장, 학원·동아리연합회장, 학부위 위원장등으로 구성되었다.

높은 꿈을 가지세요



浩然之氣를 키우며 무한한 미래를 준비해 온 내일의 주역들— 이러한 인재들 아끼고 키우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가져야 할 커다란 책임입니다. 부단히 연구하고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보다 큰 세계를 향한 도전에는 패기와 진취적인 기상으로 충만한 젊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젊음이 마음껏 일하며 높은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일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이룩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삼양사

● 纖維部門: 폴리에스테르 SF, 폴리에스테르 PPL, 綳紡糸, 配合飼料
● 食品部門: 雪糖, 飴飴, 澱粉糖, 飴飴, 水産物, 配合飼料
● 化學部門: 異丙交換樹脂, TPA, 各種樹脂, 各種化學品, PET-BOTTLE
● 機械部門: 錫物, ROLL, POWER PRESS, 産業機械, 製板機械

한민족의 통일

그 기원에 찾아서

심오한 행적과 절사를 유지하며 「인민대중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당과 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때 서 울에 진주한 미군정은 건국과 인 공을 부인하고 군정이 「한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표명하여 한국의 민중생태에 대한 적대성을 드러내었다. 미국은 남한을 세계 자본주의의 신식민지 지배질서하에 편입시키려는 세계전략하에 남한에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를 구축하려 하였고, 이것은 한국사회 민중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신식민지 지배 논리에 부합되는 정권을 옹립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므로 미군정은 해방직후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지도력을 우러하여 이들을 포함한 진보적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적산 분화, 인종경제제 일련의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토대와 상부구조를 재편하면서 자신들의 신식민지 국가권력을 장악할 새로운 동

을 목표로 운동하였다. 이승만의 남한단정수립운동은 한민족을 일부 극우세력을 기반으로 집요하게 추진되었다. 46년 6월 3일 정 유발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단정을 주장하였고, 자신의 독립방안을 미국무성과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기위해 도리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승만은 도미의 목적을 「조선통일문제의 UN이관과, 조선정부 승인에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라 밝혔다. 귀국후에도 김구총신의 입성의 방통과 권위를 부인하며, 김구식·여운형 등 중장과의 과우합적 성과와 노력을 무시한채 단정을 향해 절 주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끊임 없는 노력과 미국의 대외정책이 부합되어 마침내 한국문제는 한 국인의 손에 떠날 수 있는 국면이 되었다. UN의 통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UN감시하의 38이남의 총 선거일자는 UN한국위원단과 미 군정당국의 협의에 의해 1948년 5

이를 계기로 각지방에서는 「야 산대」라는 무장 유격대 소조가 생겨 무장투쟁전술로 전환하는 분 기점이 되었다. 이른바 「2·7 구 국투쟁」이라 불리는 이투쟁을 통해 북조선 최고인민위원회의가 2 월 11일 발표한 「조선 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임시헌법초안」을 각지 방당에 보내어 이를 지지하는 대 중투쟁을 함께 벌임으로써 「단선 반대투쟁」과 「인민공화국 수립지 지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4·3 제주도 민중항쟁과 5·10선거 반대투쟁으로 이어져나간 것이 다. 민중들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선거작업이 진행되자 남포 당은 단선반대를 위한 남북협상이라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이고 「정치투쟁」과 함께 비합법적이고 대 대적인 「폭력투쟁」을 계획하였다.

또한 남포당은 5·10 선거반 대투쟁을 두단계로 구분하여 선거 실시 전까지는 이를 파과·파 단시키는 투쟁을, 선거가 실시되 면 부호화 투쟁을 전개시키기로

합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수 있었다. 이러한 투쟁은 해방후 인 민위원회의 권한이 압도적이었던 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데, 제주 도지사 박정호는 「인민위원회의가 제주유격이 부위원장, 각면장이면 투쟁위원장을 겸임하던 상황이었 다. 제주항쟁은 육지의 「2·7 구 국투쟁」의 일환으로 47년 3·1절시 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있다.

1월부터 미군정과 경찰에 의한 인민위원회의의 대항 검거·투 옥이 감행되었고, 3.1사위후 경찰과 국유청년단등 보수세력에 대 한 시위 공격을 점차 강화해가 면서 전개되었다. 즉 타지역보다 일찍 무장투쟁기로 돌입하여 4·3 항쟁기가 되던 게릴라투쟁을 지도하는 군사위원회가 하루에 면 단위의 인민위원회를 조직, 무장 투쟁의 핵심으로 삼고 각종 의 판단체가 뒷받침하는 총력전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또한 세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물리력을 확보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항쟁초반 유리한 위치를 점할수 있게

- ◇글심는 차례
1. 일제하 조선의 상황과 8·15해방
 2. 순수해방공간의 정치역학 관계
 3. 미·소군의 진주와 군정수립 그리고 분단
 4. 이승만의 단정수립과 조국통일 투쟁
 5. 김일성과 북녘의 인민정권
 6. 북녘의 사회개혁
 7.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년 5월 군·경찰등 토벌대에 의해 유격대의 대부분이 소탕당할 때까지 2년동안의 피해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가히 상상할수 없 을 정도이다. 이와같은 장기유혈투 쟁사태로 진행된 제주 4·3항쟁은 기본적으로 2·7구국투쟁의 연장선상에서 5·10선거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된 「단선·단정 반대투쟁」 「통일민주국가수립투쟁」 이라 할수있겠다.

IV. 여순항쟁과 유격투쟁

전국적인 민중의 반대속에서탄 생한 이승만정권은 「철저한反共」을 국시로 삼아 대대적인 좌익 소탕을 진행시켰다.

남시 진행되고 있던 제주민중 항쟁은 막 출범하려는 이승만 정 권의 입지를 불안케 하였고, 이 어 신생정부의 존속조차 심각하 게 위협했던 여순항쟁이 발발하 였다. 48년 10월 제주도 출동명령 이 하달된 국방경비대 14연대는 「통족상잔」과 「만민」의 선택을 강요받았고, 군내에 침투해있던, 좌 익의 선봉으로 군의 붕괴가 촉 발되었다. 군의 붕괴는 급속히 확대되어 여수와 순천이 일시 완 전히 장악당했고, 지하의 좌익도 단위의 등장하여 친일·침미파· 지주·반동을 처참하고, 인민위원 회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10월말 에 진압군에 의해 여수가 탈환 되면서, 모든 좌익들은 지리산으 로 패주하여 유격활동으로 전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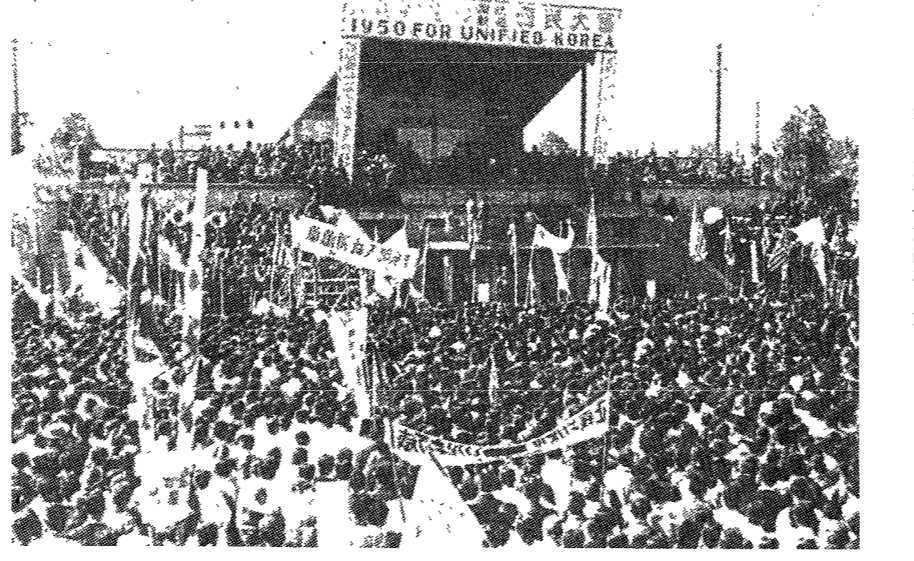
여순항쟁의 여파는 전남지방에 만 국한것이 아니었다. 미군의 철수가 연기되고 군의 숙청작업 이 본격화되어 일방의 혐의가 있 는 모든군인이 숙청당하고 그의 상의 수가 서북청년단등 유격청 년의 의해 보강되었다. 또한 패 주한 반군의 지리산 게릴라 남포 당과 남북한의 갈음이 극도로 심 에화 되었다. 한편 여순항쟁을 계 기로 이승만정권은 명실상부한 계 공국가로서 체제 내용이 채 워져 「명실 북진통일」을 그들의 모토로 부르짖게 되었다.

V. 맺음말을 대신 하여 - 38선상 전투

여순항쟁과 제주항쟁을 효과적 으로 진압해낸 이승만정부는 49년 가을 서구열강으로부터 정부승인 을 얻었던 내외적 안정기조를 틀타 공식적인 북진을 발발하여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감하여 49 년 봄부터는 38선 근처에서 대 규모 전투행위가 발생하고, 남한 내부에 형성된 주요유격지에서 서 게릴라들의 공격이 활발해지기 시 작하였다. 38선을 국경선으로 여 기지 않았던 남과북은 주로 남 쪽의 도발에 상대적으로 절제된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반격으로 주로 응진 개성 춘천등지에서 발 발하였다. 소규모부대의 교전형태 로 진행된 38선전선은 50년 초반 까지 치열하게 계속되어 5월 에 이르러 잠시 느그러져 폭풍 전의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희주 <대학원사학과 석사과정 1학기>

單政구상... 全민중적 저항에 부딪혀



1950년 5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운동대회. 사진은 통일운동가들이 '1950 FOR UNIFIED KOREA'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지원을 기반으로 이승만 단정수립 강행해 조국 통일 위한 단독정부반대... 무장 투쟁 불사

월 10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렇 게해서 남한단정정부는 이승만 의 한민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항보단과 경찰의 감시하에, 국방경비대와 미 군의 비장경계하에 강행되고 말 았다. 그 당시 가장 격렬하고 치 열한 투쟁을 전개한것이 제주도 다 할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 바 「제주 4·3민중항쟁」이다.

4·3항쟁은 제주도의 역사적 경 험과 해방이후의 사회·경제적 변 동으로 인해 지극히 폭력적인 장 기유혈사태로 진행되었기 그특정 이라 할수있겠다.

즉 오랜자치생활에서 나타난 고 립성, 강력한 혈연·지연에 기반 을 둔 사회구조, 자영적 소작이 대 부분인 영세소농에서 비롯되는 공 중노동의 활성화와 공동어로들이 집단성을 강화시켜 주고, 극심한 중앙지배권력의 수탈과 외압, 정 치적 유배자들이 실어준 육지에 대한 반감, 지리적 위치가 부여 하는 해양문화적인 강인기질등에 의해 미군정에 대한 강력한 저

항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수 있었다. 이러한 투쟁은 해방후 인 민위원회의의 권한이 압도적이었던 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데, 제주 도지사 박정호는 「인민위원회의가 제주유격이 부위원장, 각면장이면 투쟁위원장을 겸임하던 상황이었 다. 제주항쟁은 육지의 「2·7 구 국투쟁」의 일환으로 47년 3·1절시 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있다.

1월부터 미군정과 경찰에 의한 인민위원회의의 대항 검거·투 옥이 감행되었고, 3.1사위후 경찰과 국유청년단등 보수세력에 대 한 시위 공격을 점차 강화해가 면서 전개되었다. 즉 타지역보다 일찍 무장투쟁기로 돌입하여 4·3 항쟁기가 되던 게릴라투쟁을 지도하는 군사위원회가 하루에 면 단위의 인민위원회를 조직, 무장 투쟁의 핵심으로 삼고 각종 의 판단체가 뒷받침하는 총력전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또한 세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물리력을 확보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항쟁초반 유리한 위치를 점할수 있게

I. 머리말

한국민중은 해방과 더불어 외 세의 영향을 받지않는 자주적 의 일민주국가의 수립이 그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이 단정 의 수립으로 좌절되는 듯이 보 였으나 미군정과 극우보수세력에 대항하는 민중의 통일민주국가 수 립을 향한 투쟁은 끊이지 않았 던 것이다. 이들에게는 민족해방 비극인 분단의 시초였던 단정의 수 립과정, 그에 대항한 민중들의 단 선·단정반대투쟁을 살펴봄으로써 단정의 현대사적 의미를 재음미 해보고자 한다.

II. 미국의 대한정 책과 단정의 수립

1. 미국의 대한정책

해방직후 한국사회는 건준을 중

반자를 육성 강화시켜 나갔다.

2. 이승만의 단정추진

제 1차 미·소공위가 무기휴회 로 끝나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의한 한국 임시정부 수립의 전망은 예측하기 곤란하 게 되었다.

이에 우익진영의 세 열수중, 이 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 에 나섰다. 김구는 반탁 자주독 립의 방향으로, 김구식은 미군정 의 후원에 여운형을 삼대파 좌 우합작을 추진하여 미소공위 재 개에 의한 통일 임시정부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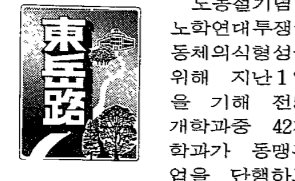
한편 학내의 사업으로 진동 을 겪고 있는 외국어대 독일 어과 1학년들은 학교측에 이 끌려 수업을 정상화하고 중간 고사일시를 결의한 총학생회에 대해 비판의 대자보를 발표하 고 이를 통해 「총학생회의 의견 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확신한 기에 애초대로 시험거부를 결 의한 것이다. 앞으로 후 부쟁 의 발발상 총학생회에서 시험 거부를 계획한다면 더 부당하다 고 판단될때는 우리만이 아니라 시 령을 치를 것」이라고 신인생 들 담지않은 주체

정 당 성

비판 태도학에 의 를 듣지 않더라도 통악내에서 전개되 는 투쟁의 연대는 커다란 이슈화되고 있으나 「부쟁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지 못해 학생대 중의 좌극적 참여 를 유도하지 못하고 선진적소 수인만 활동을 펼쳤다.

다가오는 5·18계승투쟁과 이 어지는 대중제기간동안 취해져 야 할 학생들의 태도와, 구체 적으로 지적되어야할 부쟁주간 동안의 수업거부등을 비롯한 전 면면업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 당성이 부여됐을때만이 의의를 가질수 있다. 또한 이 바탕하 에서 이전의 오류를 지양할 을 바른 사업전개와 목표달성을 이 풀 것이다.

<서창훈 記者>



노동절기념 및 노학연대투쟁공 동체의식형성을 위해 지난 1일 을 기해 전51 개학과중 42개 과학과가 동맹휴업을 단행하고 학생들은 파업등업에 「단결·대 동·연대」를 통한 흔들림 없는 사업의 전개」를 표명없이 외 쳐왔다.

그러나 학생대중들의 말과는 달리 1일 있었던 「노동절기념 및 노경전진전위를 한 범동약 2차결기 대회」에서는 파업 이 실시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6 백여명만 참가했을 뿐 아니라, 3일경 릴 예정이었던 정 기학생총회역시 2 천여명도 미치지못 하는 숫자가 참가 해 정족수미달로 무산되고 말 았다.

총회에 참가했던 일부 학생 들은 「논리와 말만을 앞세운계 투쟁의 정당성을 느끼지 못해 방관자적 자세로 태도는 사람들 이 있는 좌극의 상황에서는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원성을 터 드렸다.

이러한 오점은 예전에도 누 누이 지적되어왔고, 노동절을 포 함한 연대투쟁기간 동안에 더욱 가시화 됐다.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 2533년 동국대학교 개교 83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 주 지 권 감 순 대 중 일 동 전화 7622127888 팩스 7622127888	삼 주 지 박 세 민 대 중 일 동 전화 8988119996 팩스 8988119996	석 주 회 주 영 고 대 중 일 동 전화 663177712 팩스 663177712	영 주 지 최 도 원 대 중 일 동 전화 4444143321 팩스 4444143321	마 주 지 한 지 안 대 중 일 동 전화 551146183393 팩스 551146183393	화 주 지 정 정 승 대 중 일 동 전화 331146183393 팩스 331146183393
백 주 지 담 대 중 일 동 후 사 전화 336355461132224 팩스 336355461132224	법 주 지 유 월 탄 대 중 일 동 전화 44333333209 팩스 44333333209	은 주 지 적 사 대 중 일 동 전화 66116711572 팩스 66116711572	동 주 지 학 대 중 일 동 초 사 전화 44333333209 팩스 44333333209	보 주 지 윤 화 규 대 중 일 동 전화 336355461132224 팩스 336355461132224	도 주 지 선 대 중 일 동 초 사 전화 336355461132224 팩스 336355461132224

계급달라도 타도대상은 하나

『청년학도여! 조금만 더 버텨요! 지금 이방 생산의 주체 노동자의 거대한 울림이 시작되고있다』 이 말은 87년 6월항쟁당시 거리에서 싸우던 청년학도에게 던진 노동운동가의 외침이었다. 이 말은 89년 5월 현재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펼쳐지고있다. 87년 대투쟁을 경험한 노동계급은 엄밀하게 확립된 조직력을 갖추고있다.

89년 민족민주진영에 개입되는 노동계의 탄압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맞서 노동자는 연대파업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며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노학연대는 이제 현실적인 당면과제로 제기되어지고있다. 현실이 올바른 노학연대의 관점과 노동자 부정을 이해함이 특히 요구되어지고있다.

노학연대를 이야기하기전에 먼저 연대의 관점부터 짚아 나가야 할것이다. 연대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즉, 주체대 주체로서 계급과 계급, 계층이 공종의 이해에 기초하여 공종의 적에 대한 싸움을 전개하며, 서로에게 도움을주는 행위이기때문이다. 이는 연대 실천이라는 자체가 협소한 계급 내지는 계층의 이해를 내거는 것이 아니라, 여타 계급의 이해를 내면해내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계급과 계층의 질서가 형성되며, 이것을 통하여 통일전선의 내용과 질서가 수립되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후 권력의 장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것은 변혁운동의 과정에 노동자 계급이 선도세력, 선진세력으로 싸워나갈을 의미하며, 여타계급의 이해를 내면해내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노학연대는 주체의 정

공종의 이해에 기초한 상호 이해의 실현이라고 했을때 시혜적 관점에서 노학연대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불쌍한 노동자를 학생들이 도와준다는 식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대 주체의 단결의 울림을 실현에 옮겨야한다. 노학연대는 노동자와 학생이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즉, 남한사

노학연대, 정치적 권리를 찾는과정 주체의 결합으로 대중적실천 모색

회속에서 끊임없이 억압받는다는 동질감속에서 비록 계급성은 다를지라도 타도의 대상이 같다는 점에서 공종의 목표가 주어지야한다. 이러한 속에서 남한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노학연대의 관점은 첫째, 주체대 주체로서 결합해야한다. 둘째, 정치적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번 노동절의 총파업 투쟁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내고 청년학생의 내용도 가지고 결합해 들어가야 할것이다. 현실이 노동운동은 파소정권에 의하여 철저한 탄압, 파괴당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현실기속에서 전체 애국 민족세력에게 가해지는 탄압의 한 영역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동의대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노골화되어 나가고 있는 노태우정권의 야수적 탄압에 맞서 이러한 현 하구권을 풀어내는 틀과구를

관점과 노동운동의 역사성속에 파악하여야할 것이다. 먼저 이번 투쟁은 87년 대투쟁과 달리 당시의 한계로 지적되던 조직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층 조직된 정치적 진출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도 노동자가 분열을 극복해내고 자기계급의 공종의 적인 자본가 계급과의

적대성의 확인속에서 스스로 시피한 노학연대가 87년의 소란 경험을 안고 88년 초 보적인 연대를 경험하면서 세

을 일상연대의 부분적인 것을 전부로 인식하는 경향주의적인 폐해 또한 초래하기

는 학생·재야 민주세력들이 가시없는 「조」를 표출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언론은 이를 지금까지의 모든 자주·민주·통일의 성과물까지도 부정하며, 스스로 폭력을 일삼아왔던 과거에 대해 「참회」하는 듯이 보도함으로써 현실 정권과 그들의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 시켜 주고있다. 마치, 세상이 「폭도」들로 뒤덮여 「공권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다.

업 투쟁은 정세와 주어진 사안의 내용속에서 엄연히 경제 투쟁의 영역인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정치투쟁으로 나아갈수 있는 유리함이 주어진다. 여기서 더욱더 힘있게 준비해나아가야할 과제가 노동자와 청년 학생모두에게 주어진다. 과거라할 수 있을 것

85년 이후 거의 단절되다

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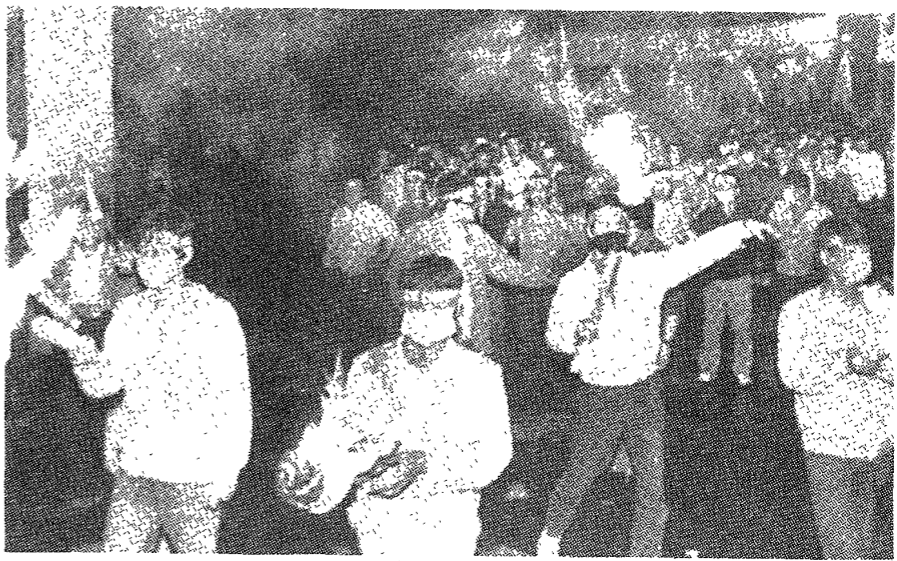
를

롭게 제기되었다. 이전의 연대가 소수 선진적인 인자와의 결합이라던 88년이후는 이러한 연대를 대중적으로 실현하려했다는 점이었다. 비록 낮은차원이나마 양 대층과의 결합이 초보적으로 모색되었다. 이러한 일상연대사업의 활성화가 연대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한층면에서는 연대사업

도 하였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의 과정에서 청년학생의 미약한 연대속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랄 수있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우리에게

는

는



지난달 29일 연세대관에서 노동자·학생들이 뿔뿔히뿔뿔하며 노학연대로 향하고있다.

노학연대의 관점을 공종의 적을 대상으로 투쟁해 나가는 주체와 주체의 관점의 올바른 실현이 필요하다. 또한 노학연대속에서 노동자와 학생 두 주체간의 동지적 결합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램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 물적도움등의 형태로 왜곡되어 진행되는 이런 문제를 올바른 동지적 실천의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할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학연대의 초보적 발돋움에 시작됐다. 애국민주세력을 단결하게 짓밟는 공종의 적에 대하여 민중해방, 노동해방의 길을 향해 더욱더 절박으로 발전된 노학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학연대의 초보적 발돋움에 시작됐다. 애국민주세력을 단결하게 짓밟는 공종의 적에 대하여 민중해방, 노동해방의 길을 향해 더욱더 절박으로 발전된 노학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학연대의 초보적 발돋움에 시작됐다. 애국민주세력을 단결하게 짓밟는 공종의 적에 대하여 민중해방, 노동해방의 길을 향해 더욱더 절박으로 발전된 노학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학연대의 초보적 발돋움에 시작됐다. 애국민주세력을 단결하게 짓밟는 공종의 적에 대하여 민중해방, 노동해방의 길을 향해 더욱더 절박으로 발전된 노학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윤 팽 현 <로마대 특필>

광주학살구명 5공청산으로 가능



지난11월23일 전두환前대통령은 대국민사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뜻을 밝혔다.

현 시국의 흐름은 문부사 방북과 더불어 원정권을 더욱 「광복의 도가니」로 물아넣은 「통의대 참사」로 현 시국은 노점권의 구상대로 접어들어 「보-현대결」의 전운이 감도는 듯한 긴장마저 느끼게 한다. 사실, 제도언론은 연일 동의대 참사를 보도하면서 일방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었던 급변 사태에 대해

은 학생·재야 민주세력들이 가시없는 「조」를 표출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언론은 이를 지금까지의 모든 자주·민주·통일의 성과물까지도 부정하며, 스스로 폭력을 일삼아왔던 과거에 대해 「참회」하는 듯이 보도함으로써 현실 정권과 그들의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 시켜 주고있다. 마치, 세상이 「폭도」들로 뒤덮여 「공권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다.

가려져있는정점

5공청산...「술」증언 앞서야

현정권 정치보복 반대로 한계노정

실상 전 국민적 지지와 동정이 뒤따랐고, 지금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국민대중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진연의 영과 야권이 처한 위치와 상황인식은 편이하게 다르지만 현재의 「수세권」 측면을 역전시키고, 현 정권의 파산적 공격을 막아내기위한 유일합(?) 대중적 명분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정점은 전두환 국

회중언을 중심으로한 광주·5공청산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위문제는 중간평가, 문부사 방북, 통의대 참사 등으로 가려져 유야무야 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당하는 문제로 전락당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갖고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려져 있는 정점으로 재연하여 왔었고, 급변 일시국회를 전후로 해서 다시 정국의 핵심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부각될 예정이다. 이미 여야에 의해 전두환의 국회중언 방법·시기문제 뿐만아니라, 이후 거취문제까지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이러한 「공안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야권의 대응 논리를 보나, 민진연의 5월 광주학살의 연속적 투쟁으로 보나, 전두환의 국회중언은 가려진 정점에서 뜨거운 정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국회중언 증언이 갖는 의미

5공청산...「술」증언 앞서야

현정권 정치보복 반대로 한계노정

실상 전 국민적 지지와 동정이 뒤따랐고, 지금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국민대중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진연의 영과 야권이 처한 위치와 상황인식은 편이하게 다르지만 현재의 「수세권」 측면을 역전시키고, 현 정권의 파산적 공격을 막아내기위한 유일합(?) 대중적 명분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정점은 전두환 국

김 영 교 <진보정치연합회원>

관념적 노학연대가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자·학생 두 주체간의 동지적 결합이 절실히 요청된다

치의를 고양시키며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를 형성한다. 또한 연대는 계층, 계급적 이해의 기반위에 형성 발전한다. 이는 연대가 그 객관적 물질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과제를 추출할 수 있다. 우선 그 객관적 토대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각자의 주체에게 각인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처럼 연대가 주체대 주체로서 계급과 계급, 계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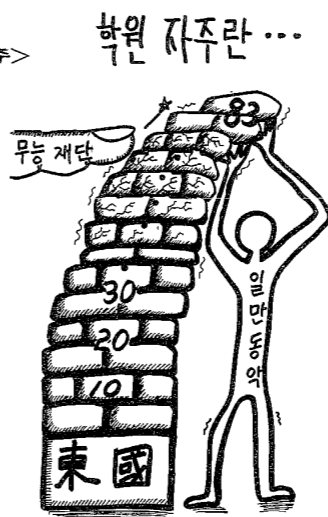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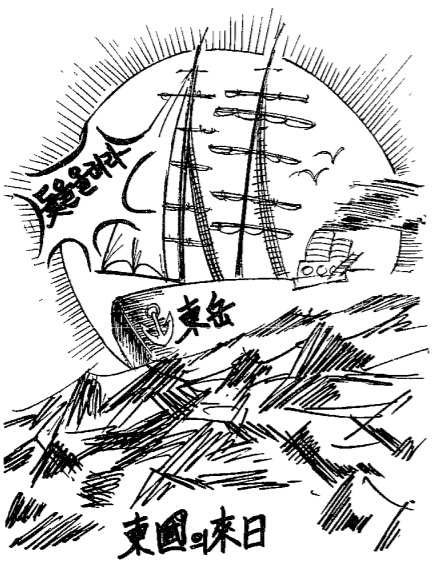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3년 동국대학교 개교83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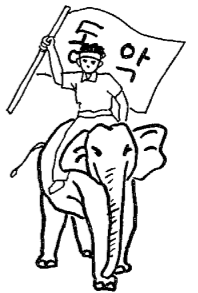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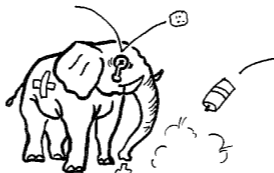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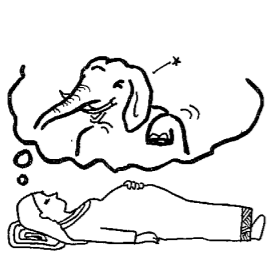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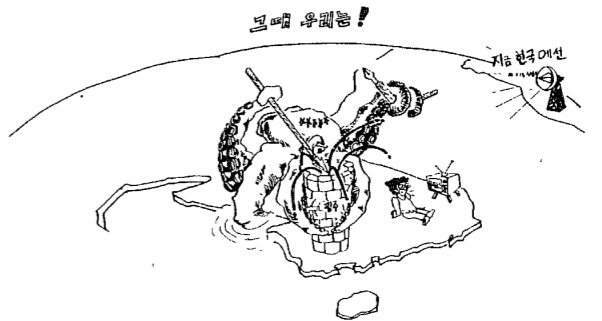
<p>白 제18교구본사</p> <p>주 선원장</p> <p>지 실 양</p> <p>주 지 조 김 이 화 천 서 능 장 동</p> <p>주 지 조 김 이 화 천 서 능 장 동</p>	<p>金 제17교구본사</p> <p>주 지 산</p> <p>대 지 송 월 주</p> <p>대 중 일 동</p>	<p>봉 제15교구본사</p> <p>주 지 영</p> <p>대 지 이 모 일 동</p> <p>대 중 일 동</p>	<p>通 영축총림</p> <p>주 지 영</p> <p>대 지 김 태 일 동</p> <p>대 중 일 동</p>	<p>梵 제14교구본사</p> <p>주 지 이 형 교</p> <p>대 지 중 일 동</p>	<p>雙 제13교구본사</p> <p>주 지 석</p> <p>대 지 무 무 무 지 석 김 노 이 고 상 원 삼 보 호 정 무 유 동</p>
<p>奉 제25교구본사</p> <p>주 지 先</p> <p>대 지 중 일 동</p>	<p>禪 제24교구본사</p> <p>주 지 문 재 공</p> <p>대 지 중 일 동</p>	<p>觀 제23교구본사</p> <p>주 조 지 실</p> <p>신 구 교 총 지 실 정 무 무 호 조 서 석 현 조 서 석 상 진 동 동 흥 화 일 동</p>	<p>보 제21교구본사</p> <p>주 지 임 송 산</p> <p>대 지 중 일 동</p>	<p>松 조계총림</p> <p>주 방 지 장</p> <p>대 지 현 미 산 일 동 호</p>	<p>華 제19교구본사</p> <p>주 지 교 총 주</p> <p>정 무 무 무 지 석 최 수 명 중 명 중 영 완 덕 십 원</p>

개교 83주년 기념 만화특집

자주 민주 통일 위해 민족동국의 뜻을 올려라.



"이젠 나도 투쟁을..."



참나... 어찌다 마야부인 꿈에 나타나서

동국대 기둥 꼭대기에 올라앉아

우리 아이들의 투쟁의 모습을 봐 오면서

독재, 미제의 피해자인 나도 함께 싸우려

맘만 먹은지 어언 83년

이젠 나도 연대 투쟁을 해야지!

뉴질랜드 교육세미나 안내

IMPROVE YOUR SPOKEN AND WRITTEN ENGLISH IN NEW ZEALAND

We are offering 5 week courses for those aged between 17 and 30 commencing in December 1989. The courses will be run by the Christchurch College of Education and will include a one week tour of the South Island of New Zealand, one of the most beautiful parts of the world. If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se courses a seminar will be held at 9:30 am on Sunday 28 May 1989, at the SEOUL HYATT REGENCY.

To register for the seminar please write to: -

"ENGLISH LANGUAGE COURSES" C/-KPMG SAN TONG & CO.

C.P.O Box 7144, Seoul Phone: 733-2345 (Ext.218) Attention: Mrs. H.R.Baek (백혜리)

축 동국대 개교 83주년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미약품공업주식회사 영업이사서 동 호

축 동국대 개교 83주년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단 하루의 여유자금을 맡기셔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안내 - 자유금리 기업어음 매출 - 어음 관리구좌

대표전화: 754-7541 투자상담: 752-3807

금성투자금융 서울 중구 다동 85, 광고네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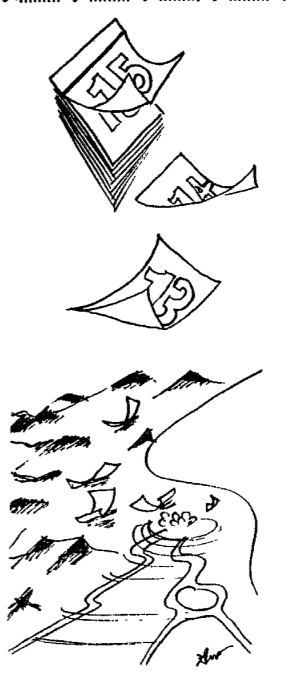


시부문 장원 원석훈 <대우상고 3년>

시부문 장원 원석훈 <대우상고 3년>
시부문 장원 원석훈 <대우상고 3년>
시부문 장원 원석훈 <대우상고 3년>

김방글 시부문 우수작 <인천영화학교 3년>

김방글 시부문 우수작 <인천영화학교 3년>
김방글 시부문 우수작 <인천영화학교 3년>
김방글 시부문 우수작 <인천영화학교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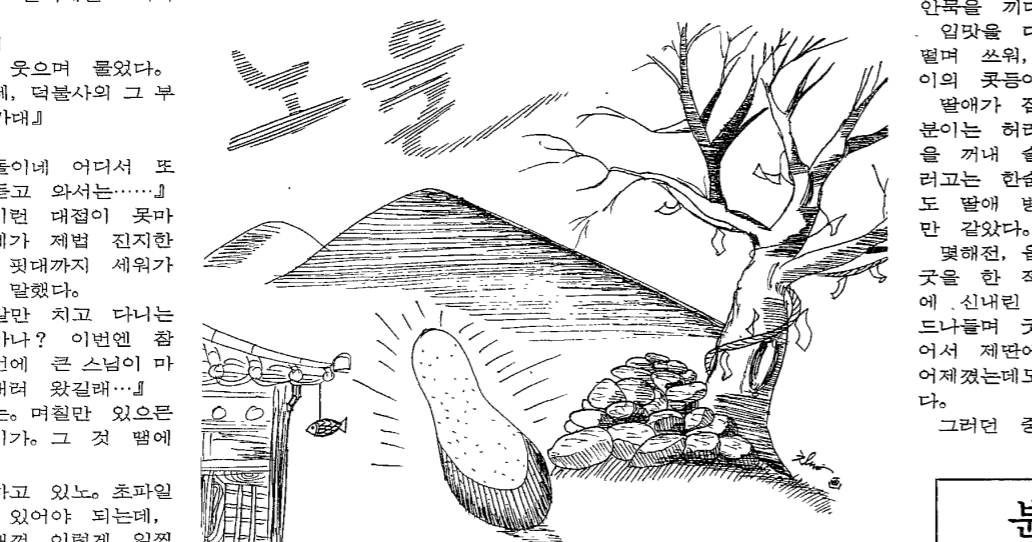


본사주최 제27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작

수상작

『개뜰이 어메, 소문 들었지요』
『아니네들, 이젠 내집이 못마땅한 듯...』
『아이야! 그러고도...』

『개뜰이 어메, 소문 들었지요』
『아니네들, 이젠 내집이 못마땅한 듯...』
『아이야! 그러고도...』



『우리 아빤이 그려드네, 어제 장터에서...』
『아이고! 그러고도...』
『그럼 우물거니?』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
『네가...』
『아니네들, 이젠 내집이 못마땅한 듯...』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
『네가...』
『아니네들, 이젠 내집이 못마땅한 듯...』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
『네가...』
『아니네들, 이젠 내집이 못마땅한 듯...』

분녀는 대답대신 합장을 하며 그들 뒤를 따랐다.
연꽃으로 장식한 마차위에는 분이의 돌부처가 석양 노을빛을 받아 금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슬픈로라 Laura Les Ombres de L'ete
슬픈로라 Laura Les Ombres de L'ete
슬픈로라 Laura Les Ombres de L'ete

운전을 배웁시다
21년 전통·성실한 교육
운전을 배웁시다
21년 전통·성실한 교육

백가방 백가방 백가방
백가방 백가방 백가방
백가방 백가방 백가방

군·행정·병·모집·찰
군·행정·병·모집·찰
군·행정·병·모집·찰

本社주최 제27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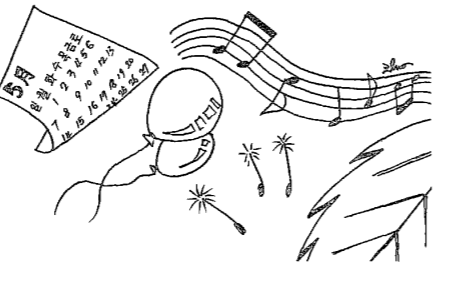
나는 오월을 좋아하며 사랑한다. 달력 가득히 무슨 날, 무슨 날, 이날은 어찌구 저찌구하는 행사가 많아서 좋다.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것 같고, 또 사람이란 게 원래가 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나만이 예외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연두빛 활기가 넘치고, 봄 치장을 한 꽃들의 우스개 잡담도 즐겁다. 온 거리를 활보하는 오월의 그 싱그러운 바람이 좋다. 하지만, 내가 오월을 사랑하는 큰 이유들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오월은 내가 사랑하는 이상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 오월은 특별보다도 포근하고 따사로운 사랑들로 가득찬다. 내가 생각컨대 오월은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람이 넘친다. 평소 있었던 사랑이 불멸으로 하여금 다시 느끼게 되나 보다. 오월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조그만 사랑의 정표가 달린다. 그리고는, 가슴 정한 전율이 흐르고 느끼는 것이 있다.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는 오월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오월은 꿈과 희망이 있다. 꼭 권 주먹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풍선을 맨 실 가락을 빼죽이 내어 보이는 아이들의 눈 속에서 풍선보다도 더욱 부푼 아름답고,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다. 『저는요, 이 답에 커서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지구요, 불쌍한 사랑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요, 과거가 재발 예쁜 인형을 만들어서요, 아이들에게 괴지랑 인형을 그냥 주고 싶어요. 음, 또, 울 엄마같이 예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요, 과학자가 되어서요, 로보트 태권V같은 로보트를 만들거예요. 그래서요, 착한 우주인들을 만나고요, 우주기지를 만들어서 나쁜 우주 악마를 무찌를 거예요! 연두빛보다도 예메랄드 바다의 빛을보다도 산뜻하고 아름다운 꿈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의 오월의 꿈 중에서 하나라도 밝음이 없다면, 각이 컸다거나 하는 꿈은 없다. 나는 이

가 받은 사랑만으로도 받는 사랑이 가득하리라. 사랑을 받고 싶다. 다 주어서 나의 사랑이 피기 전에 누구의 사랑으로 오월의 가슴을 채우고 싶다. 많이 많이 꼭꼭 눌러 받고 싶다. 이 오월이 다 가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나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우고 싶다. 베풀면 베풀만큼 사랑이 다시 오리라. 내가 나의 오월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줄다면, 내가 바라던 알찬 사랑들이 오월의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지금 열여덟은 창문사이로 민들레 씨앗이 밀려 날아온다. 내

시조부문 우수작

오월



무중무중한 오월이 글 그리고 회담이 사랑스럽다. 이러한 사랑을 가르쳐준 오월을 나는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월의 신록 속에서 나는 잠시 명상에 잠기어 본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두 빛 나뭇잎이 되어 미소짓고, 꽃들이되어 이야기하고 노랑, 빨강, 파랑 색채의 풍선이 되어 하늘 높이 날개짓한다. 오월의 햇살만큼이나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과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꿈과 희망이 무수하게 많이 빛나기를 바란다

오월의 햇살만큼이나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과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꿈과 희망이 무수하게 많이 빛나기를 바란다

오현숙 <부산계성여상3년>

시조부문 장원

김병수 <부산공고 3년>

꿈계도 품어 헤친
어린 풀기 빛을 따라
묵다른 사모(思慕)의 정
속절로만 갈싸 들어
열구리
파고 어머니
연등(燃燈) 같은 세월이어,
안으로 등(燈)을 켜면
밀려나는 어둠 한 권
희망의 사연 달아
흙바람에 날리우면
남 몰래
하늘을 헤쳐
피리같은 들을 울까,
한 고랑 패인 눈을
선연히 흘러 맺힌
발새 떠난 달그림자
신명나 선율너머
얼룩진
노도의 안녕
되뇌이면 고운 정적.

달무리



눈에 신선한 소설적 상상력을 기대하면서 심사에 임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



시조부문 우수작

이병민 <대전유성고 3년>

이 밤사
소곤소곤
달무리에 다가 서서
질펀한
흙내음은
숨어숨어 달래 놓고
달무리
달무리 안고
말없이 어는 고향
눈물이
희한에 겨워
설설 앉아 잠기는 밤
숨어 온
그리움은
달무리 속에 걸고
말 없이
달는 가슴에
달무리만 흐릅니다.



오출세

별든 가족이나 사별한 어머니에 의 기억이나 슬픔이 주류물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런점에 속한다. 우수 1석으로 뽑힌 작품은 언어와 사조의 청순함에도 남다른 점이 있었고 때로는 동화적수법을 빌려 적절히 표현의 성공을 거둔 곳도 있었다.

심사평

시 부문

문학의 여러 장르가운데서 시는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이 그 특성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시가 말을 매우 아끼는 문학임을 뜻하는 현상이다. 말은 그속에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말을 아껴서 경구언어 속에 담겨있는 생각이나 느낌도 굳어져 있는 진실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솔직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심사위원 일동이 음모자를 일 으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살핀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입선작 5편을 비롯한 상당수의 작품들이 나름대로 진실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더 많은 작품들이 솔직한 진실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부인할수 없다. 입선작중에는 원고지 24장에 달하는 장시가 있다. 짧은 시간에 이만한 길이의 작품을 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평가에 값한다.

그리고, 입선은 되지 않았지만 시나리오의 형식을 빌려 쓴 이색적인 작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밝힌다.



김장호



이형기



박제천

시조 부문

시조를 지나치게 전통적인 시형이라는 것을 마다하고 강조할 때 흔히 개성을 잃어버린 보편적 정서에 빠져버리기 쉽다. 이것은 마치 고시조가 극히 개인적인 취지나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끝내 흔하게 물들



김동준

여 있는 공명적 정서는 가라앉아 버리는 것을 본다. 오늘날의 창작시조는 그와 반대로 우리들의 전통적인 시형을 버리고 나가되, 그 시형에 사로 잡히지 않고, 이러한 보편적 정형에서 지성적인 정서를 들들일 때, 현대시에서 그 정형성을 극복하는 것이 된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참신하고 넓게 펼쳐 나가야 할 젊은 학생들의 입에서 정형이라는 말이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 좀더 정진하기 바란다.

소설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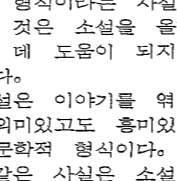
『노을』이나 『폭우』는 모두 명백한 제목이지만 바로 그렇기때



한용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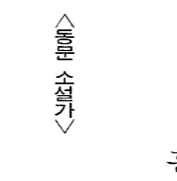
김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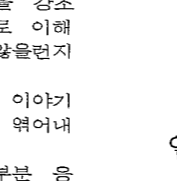
임영정

수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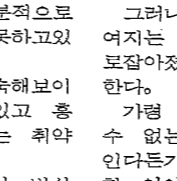
해마다 백일장에 제출된 작품들을 읽는 일은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즐거운 일이 된다. 글 속에 담겨 있는 '학생들의



홍기삼



김문수



임영정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입상작

장 원	현 석	홍(덕수상고3년)	『물』
우수 1석	김 방	글(인천영화여고3년)	『물』
우수 2석	문 선	숙(충남에산여고3년)	『꿈』
가작 1석	유 태	남(서울대공고2년)	『꿈』
가작 2석	전 수	길(충남논산양촌고2년)	『물』

장 원	김 별	수(부산공고3년)	『달무리』
우수 1석	이 별	민(대전유성고3년)	『달무리』
가작 1석	완 택	택(전남기계공고3년)	『달무리』

장 원	최 희	정(부산학산여고3년)	『노을』
우수 2석	김 진	희(경기청담고2년)	『폭우』
가작 1석	홍 훈	훈(경기태평고2년)	『폭우』
가작 2석	노 미	영(서울염곡여고3년)	『노을』

우수 1석	현 숙	숙(부산계성여상3년)	『오월』
우수 2석	신 세	장(경동고3년)	『오월』
가작 1석	김 경	아(포항동지여상고3년)	『1989년한국』
가작 2석	이 화	자(태평고3년)	『오월』
가작 3석	정 영	미(경의여고2년)	『오월』

東大新聞社



사랑해요 밀키스!

부드러움과 상쾌함이 만난다.
우유의 부드러움과 탄산의 상쾌함이 어우러진 밀키스 하얀 느낌, 부드러운 맛. 밀키스는 순수제대를 위한 사랑의 음료입니다. 사랑으로 통하는 느낌! 밀키스!



롯데칠성음료(주)

개교83주 좌담

모든 주체의 참여로 민주적 총장선출을

▲사회=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8일로 본교는 개교 8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좌담은 개교 83주년을 맞는 오늘 동국대학교의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관해 학교의 각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진다는데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본교의 위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우러나는 자랑스러운 과 더불어 오히려 점검, 더 해가는 모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총장선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학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학생 참여는 시가상조라 생각합니다.

좌담의 학자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동학 집회의 근본적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좌담과 올해로 이어지는 학자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누죠.

▲송재운=동학이 침체되었다는 사회자의 말에는 시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동학은 집적·양적 향상을 위해 일보전진하고 있는 발전 도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인수한 포항종합병원이나 올해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또한 방해동 한방병원이 곧 개실될 예정인데, 이러한 일련의 교육 시설 개선, 확충의 진행으로 보아 동국이 침체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담 전학기에 걸쳐 학생들이 동국의 학교발전을 위해 학원자주추진위원회를 전개함에 있어 일선적 교육 집행에는 부각을 가져오기도 했던 반원 운동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한 교수, 동문들에게 교육의 여러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심

발한 대로, 구성 주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때 비로소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주요상강력한 정책수립과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데, 역할 수행 이전에 정책 결정에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담도 학자부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큰 피해의식을 느낀 것이 직원이라고 보는데 합의과정에서는 직원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과정에 있어 직원은 소외되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독선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직원이 소외되었다는 점에 대해 학생처장님과 학생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재운=좌담도 학자부의 과정과 결과는 동국 역사에 있어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학자부의 발전과 마무리되는

오늘날의 학자부는 학교당국이나 재단에 요구하려는 부정으로 인식해가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준=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자부는 각 주체가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부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주체가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동국내에 존재하는 학교당국과 재단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동학의 모든 주체가 학원의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교발전의 구체적 대안인 학자부는 총장선출문제나 재단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올해로 막쳐온 총장선출문제는 동국의 향우발전과 진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신입총장의 위상과 거기에 따른 선출방법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은

추천제로 한다고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교수회의도 지난 2학기 학자부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수회의를 따를 경우 교수만의 총장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회 기회의 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봉준=이미 총학과 학자부위원회에서 상정한 민주적 총장선출제도에 관한안을 교수회나 학교당국에 드린바 있습니다. 총장은 교수만의 총장이 아닌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국의 주체가 참여하여 선출된 총장이야말로 그 권위와 존경이 우러나올 것이며 민주적 총장선거제도 실현으로 총장을 신뢰, 존경할 수 있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안재봉=총장선출에 대한 권리가 교수회에 있는 것은



김봉준

학교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통해 총장을 신뢰·존경할 수 있는 일대전환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로만 극복될 것입니다.

▲김경제=우리학교는 조계종 불교재단으로 설립되어 오 늘날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교는 타교에 비해 동학의 오랜 전통과 학교정신을 잘 아는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봉=이 문제는 장기적 총장선출제도로만 극복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에 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필요할 뿐 아니라 직원의 인사와 학교정신을 맡고 있는 총무처장직은 오랜 경험과 학교정신을 잘 아는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운=학교의 발전을 보

참석자

김 경 제
<교수회총무>
<농과대학총과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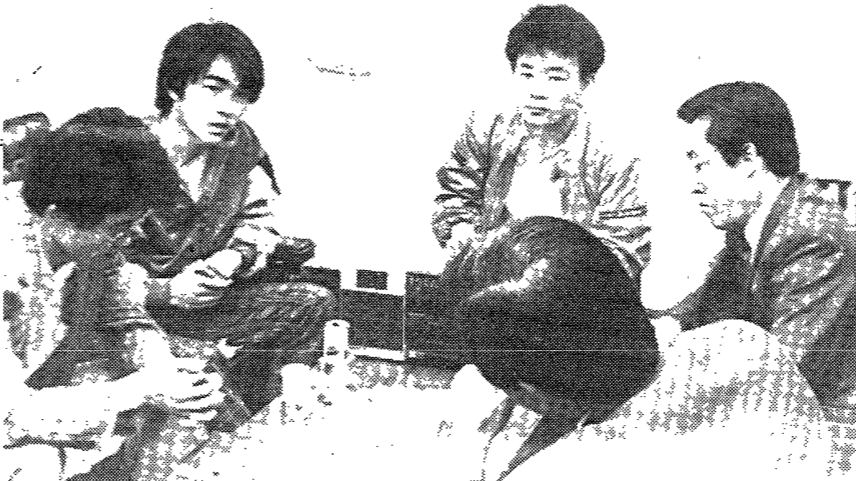
송 재 운
<학생처장·문화대 국민윤리학과교수>

안 재 봉
<직원노조부위원장·장학과주임>

김 봉 준
<총학기획부장·아간장학경영학과>

사 회 = 정 우 석
<본사편집장>

일시=5월 6일 오후3시
장소=본사 주간실



왼쪽에서부터 안재봉주임, 김봉준, 사회자, 김경제교수(뒷모습), 송재운교수.

단계에 있어 당시 학교의 각 주체가 참여하는 의식이 고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학교당국과 학생 양자간의 투쟁의 과정으로 추진되어왔던 것이 아니라, 타대학에 비해 선진적인



안재봉

직원들이 합리적인 역할수행하기 위해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학자부라 함은 학원의 자주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의 자유, 진리 탐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그 근본이라 하겠는데 교수회의를 지냈다고 확신하며 의결기관인 교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교수회칙 내용으로는 총장후보를 교수회에서 복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대학은 교수권, 행정권, 교육권으로 되어있는데, 이 삼권을 통괄하여 교수·학생·직원, 그의 등분 모두 단체가 참여하여 총장선출을 하는 것이 총장선출제도인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전국적인 총장선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성립하는데 이에 교수회에서 어떤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요?

▲김경제=물론 시대와 상황에 부합되는 가장 바람직한 최대공약수이고 총무직을 지킬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만 공감하기가 지만 학생이 직접 총장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시가상조라 생각합니다.

▲사회=총장선출이 얼마간 지났는데 교수회에서는 학생·직원과 함께 이의 관련 대학의 기회를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경제=아직 없습니다.

▲송재운=대학에서는 보편 타당성이 중요하므로 총장선거제도에 대해 외국의 예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될



송재운

재단의 전입금이 적다는 걸 인정하지만, 금년에 5억의 전입금이 들어온것은 학생들 동기에 부응한 것입니다.

간에 걸친 검토 및 연구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직교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직원들이 실무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서 결정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다음 문제로, 우리 학교 재단전입금이 5%미만의 미미한 수준이고, 또한 실질적 책임 주체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제기하는 재단에 대한 학생회추진위원회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재운=우리학교 재단 토지자산을 근본으로 하여 설립되어 편재 농지나 토지의 실제적 수입 부족과 전입금 공백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재단전입금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에 비해 금년 5

우리가산 푸르게 푸르게

이만큼 자랄때까지...

크리넥스 티슈 애용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우리가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유한김벌리가 벌여온 '우리가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우리가산이 푸르러지는 날까지 매년 100만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10년, 20년후 우리가 심고 가꾼 나무가 푸른 우리가산을 이룰때까지—'우리가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크리넥스 티슈 애용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유한김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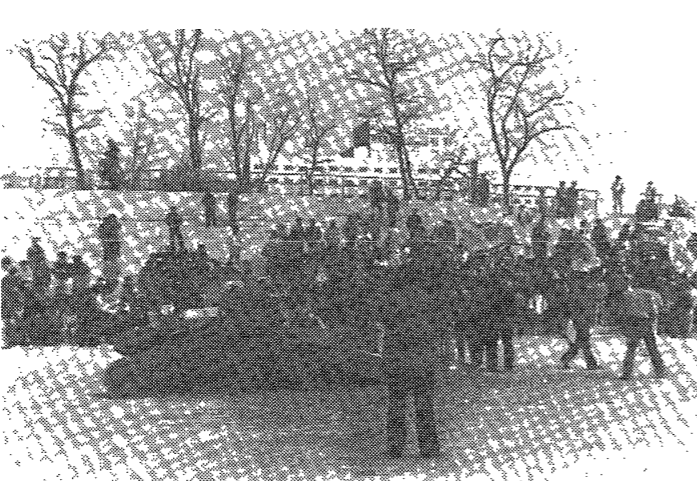
REGO TRADEMARK KIMBERLY-CLARK CORP. U.S.A.

학자투와 정치투쟁... 동전의 양면

학원의 자주화와 사회민주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회 민주화투쟁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 민족과 민중의 변혁의 과정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바로 미제국주의와 그 대리통치인 독재체제 및 독재정권을 한층으로 하고 식민지 애국민중을 한층으로 하면서 완전한 민족해방과 애국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원 자주화 투쟁은 학원이라는 지역적 단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변혁의 과정과 식민지 지배 질서의 구조적 해체인 인적, 물적, 사상적 구조를 혁신시키기 위하여, 본질에 있어서 학원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해방투쟁의 한 영역이라는 것과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본질적 인식에서 학원 자주화 투쟁과 정치 투쟁의 연관성을 그려내는 것은 자칫 실천적이지 못하고 사변적인 논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학자투와 정치투쟁은 본질적으로 하나
그렇다면 학자투와 정치투쟁과

는 학원 자주화 투쟁은 총중적 발전을 지향하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하며, 그 안에서 학우대중의 계층으로서의 이익을 옹호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학자투를 전개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쟁의 성과가 얼마나 주체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적을 무력화 시켰는가이다. 이를테면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학생회가 강화되고 학우대중의 정치적 의식과 조직화에 기여했는가이며 현 노태우 정권에 대항한 애국민중 세력의 단결에 기여했는가이다. 그 가시적 성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학자투의 영역에서는 학교당국 및 재단의 보수 어용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학자투와 정치투쟁은 본질적으로 하나

학자투, 인적·사상적 구조혁신의 과정 정치투쟁 주체는 선진대중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먼저 학원에서의 정치투쟁의 주체는 현제 대중운동의 수준으로 보면 학생도 비교적 잘조직화되고 선진화된 학생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자투는 선진화되고 잘조직화되지 않은 학우대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계층적 이해와 요구(정치적, 경제적) 등을 실현할 전망이 보이면 그리고 모순에 대한 일차적인 인식만 있어도 언제든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비단 학생뿐 아니라 양심적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원의 동문까지도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의의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 민주화와 학원 자주화 투쟁의 결합을 용이 수할한다는 말의 의미는 투쟁의 주체에 있어 절대다수의 대중이 2가지 과정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인식하도록 조직화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투쟁의 대상에 있어서 학원의 사상적, 인적, 물적 구조 혁신을 지향하는 투쟁을 유지하며 더는 모순이 더욱 적대적이면 적대적일수록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일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지만 정치투쟁과 같이 적대적 모순을 피지 않을 경우에

학우들의 정치적 자각속에서 학원에서의 제반 자주적 영역이 확대되어 학원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며 정치투쟁의 영역에서는 미·청과대 특색의 보수 대연할 음모를 분쇄하고, 조국권의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민족해방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용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우대중의 정치적 각성 과정

그러서 결국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결합은 2가지 투쟁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우대중의 투쟁의 집중성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학생의 사업의 집중 문제로 결론은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자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데 대중투쟁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조직체와 지도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건는 투쟁의 소재와 제기성이다.

88년 1학기 및 2학기 학자투는 바로 이러한 투쟁의 소재와 제기성과 함께 학생회의 통일적인 체계가 결합하면서 대중투쟁이 촉발된 성공적인 대중투쟁의 사례였다.

장학금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학원사회의 힘이 되고 여론의 반동성이 학우들에게 폭

그것은 첫째 관점의 통일이다. 학자투는 단순히 경제복지차원의 관점에서 투쟁을 전개한다면 아무리 투쟁의 소재가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원 내부의 정치적 결합을 하나의 형식적 틀(집회)에서의 결합으로 시도하려 하면 기계적일뿐 아니라 비판을 면치 어렵다.

힘의 집중성 가져야

89년도 학자투의 과정은 개인의 물적 구조혁신투쟁과 교과과정 전면개편투쟁 그리고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정착투쟁이며, 이 세가지 투쟁의 과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투쟁의 대상과 동력이 있어서 상호인칭하는점이 있으며 모두 전면적인 대중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여야만 가능한 투쟁이다. 그리고 당면의 정치투쟁은 미제의 보수대연합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노태우정권은 5공으로의 회귀를 꾀하며 제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속에서 기층민중운동들 각개격파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층민중운동세력은 오히려 단결된 양상으로 전진행진의 거센물결로 번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5월 1일 노학연대를 계기로 철학운동도 당면의 엄청난 시기 속에서 반노태우전선에 대중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대중적 투쟁의 촉발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면 일치하지 않든 대중적 투쟁을 축적·준비하는 시기라던 하나의 형식적 틀(집회)에서 같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결합의 최우선의 과제는 대중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대중의 창조성에 근거한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 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철칙을 팔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승민 <문과대 영문과>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기계적 결합 비판

이렇듯 학자투와 정치투쟁과의 결합정도를 비교적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동안의 학우대중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2가지 투쟁의 과제를 올바르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학생회 조직의 상황과 89년 학자투의 과정과 당면의 긴박한 정치투쟁이 총체적으로 검토되면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다.

먼저 학생회상황을 보면 총학생회-단과대-과학생회 골간의 학생회간부들은 기본적으로 선진적인 활동가로서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지도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부-연사부 및 단과대 사회부가 건설되어 비교적 탄탄한 정치투쟁 주체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자투는 중앙에 학자투위, 교과위, 학생복지위원회가 건설되어 독자적인 집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정책위원을 중심으로 단과·과까지 주체가 마련되어 있어 학생회 조직속에서 역할의 배분은 일단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역할분담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서로 다른 바퀴를 돌리는 힘의 분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회조직에서 집중성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힘의 집중성 가져야

89년도 학자투의 과정은 개인의 물적 구조혁신투쟁과 교과과정 전면개편투쟁 그리고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정착투쟁이며, 이 세가지 투쟁의 과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투쟁의 대상과 동력이 있어서 상호인칭하는점이 있으며 모두 전면적인 대중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여야만 가능한 투쟁이다. 그리고 당면의 정치투쟁은 미제의 보수대연합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노태우정권은 5공으로의 회귀를 꾀하며 제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속에서 기층민중운동들 각개격파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층민중운동세력은 오히려 단결된 양상으로 전진행진의 거센물결로 번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5월 1일 노학연대를 계기로 철학운동도 당면의 엄청난 시기 속에서 반노태우전선에 대중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대중적 투쟁의 촉발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면 일치하지 않든 대중적 투쟁을 축적·준비하는 시기라던 하나의 형식적 틀(집회)에서 같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학자투와 정치투쟁의 결합의 최우선의 과제는 대중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대중의 창조성에 근거한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 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철칙을 팔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승민 <문과대 영문과>

연구활동 활성화가 시급하다

학동쇄신을 위한 제언

본교는 1906년 개교 이래 83년의 세월속에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룩했다. 학생수에 있어서 무려 50배나 증가하였고 학과수 또한 10여배나 늘어나고,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이러한 양적 팽창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역사발전이 양·질 상호발전의 병행속에서 보장받는다」고 했을 때 현재의 동국대는 이러한 발전법칙에 어긋나는 모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대학이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의 장으로서 학문적 발전을 통한 신학술 창출의 매카니즘을 기본적으로 학문연구를 왕성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학동쇄신을 위한 기본과제는 이러한 학교예대한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동국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단입금은 5% 미만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이는 고려대가 지난해 재단입금이 1백7억여원으로 비해 본교의 경우 10억여원으로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낄 수 있다.

비슷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사학으로서 타교와 비교할 때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수 연구비 지급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책정한 금액은 매년 4천6백만원정도로 이중 4천만원만 해외연수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 연구비로 지난해 장학식(교미술사학) 교수들 비롯한 5명의 교수가 연수를 다녀왔고 나머지 6백만원은 교수 3명에게 지급된 뿐 수혜의 폭이 적었다.

교외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는 문교부·재단 등에서 2억1천만원이 지급되어 총35명의 교수에게 전액였다.

학술부의 김재영씨는 「정확한

역수는 파악키 힘들다 이 정도의 연구비 지급수준으로는 서울의 K·Y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한다.

한편 89학년도 3월부터 교수능력발전과 학술자료수집을 위한 연구기금을 부여하는 「연구년제도」가 시행준비중으로 10년이상 근속교원에 한해 신청접수를 받아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올해는 9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도서관의 경우 1962년 건립 이후 그대로 사용하다 1982년 단1층만을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학생수에도 10여배나 증가된 지면의 상황으로는 수요능력면에서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의 열람석수 2천4백여석을 9천4백여학성이 사용, 3.8명

같은 몇몇 연구소는 조교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학술부에서 각 연구소장 발령에 지원한 금액은 연구소당 50만원씩 10개 연구소에 5백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우수 연구소의 특별합격이 선행되어 연구실과 거의 없는 연구소는 없애고 새로운 연구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함께 과감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소의 활성화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출판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학술도서 총9가지 11권이 출판되었는데 출해의 경우는 신입생 교과서비 환원 등으로 예산이 적자라는 기록, 출판조사 합류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학교지원이 얼마만큼 이뤄지는가를 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탈고도 학동쇄신을 위한 환경개선문제도 각과 사무실, 강의실, 식당등 복지조건에 대한 사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전의 동국은 민족사학으로 문학·사학·철학의 훌륭한 연구성과로 일류동국으로 지칭되어 왔다.

전석담(철학부), 양주동(과고), 이기백(철학대교수), 조지훈(과고) 등 당대대총이라 하는 명교수진을 확보 일류동국에 걸맞은 교세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동국은 어떠한가. 교수는 당도 양심있는교수가 드물고 연구소는 당도 상당한 연구소는 드문 형편이다.

한대학원생은 「일제 식민지를 거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불교가 탄압당해왔으며, 총칭 학인인 본교가 철학계원 원인이사로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총단의 비주체적 모습과 실상상상으로 총단내부의 분규로 몇몇만 자리매김을 해오지 못한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동국학동의 쇠신을 유도하려면 먼저 학교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교 건학이념인 「대중적이고 민족적인 불교의 구원」이라는 명제처럼 「민족중흥」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중요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인적구조, 물적구조의 혁신화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동국학동의 쇠신 가능하리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개교 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동국은 가시적인 안일한 민족에 머무는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동국학동은 「민족의 혼」과 일치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보이는 내태하고 무력한 불교의 모습이 참모습이 아닐까. 자각하고 총단, 재단의 반성을 촉구하여 함께 진작하여 일어나자.

연구소의 경우는 그 수에 있어 21개교 타대학에 비해 결코 적은편은 아니나 실질적인 연구성과나 지원문제에서 볼 때 불교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등 몇개 연구소를 제외하면 간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새마을연구소와 같은 응용연구소가 유신이라 여겨질 존재하며 정부유학의 가능성을 갖는 연구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던가, 공간행정연구소와

같은 몇몇 연구소는 조교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학술부에서 각 연구소장 발령에 지원한 금액은 연구소당 50만원씩 10개 연구소에 5백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우수 연구소의 특별합격이 선행되어 연구실과 거의 없는 연구소는 없애고 새로운 연구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함께 과감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소의 활성화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출판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학술도서 총9가지 11권이 출판되었는데 출해의 경우는 신입생 교과서비 환원 등으로 예산이 적자라는 기록, 출판조사 합류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학교지원이 얼마만큼 이뤄지는가를 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탈고도 학동쇄신을 위한 환경개선문제도 각과 사무실, 강의실, 식당등 복지조건에 대한 사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전의 동국은 민족사학으로 문학·사학·철학의 훌륭한 연구성과로 일류동국으로 지칭되어 왔다.

전석담(철학부), 양주동(과고), 이기백(철학대교수), 조지훈(과고) 등 당대대총이라 하는 명교수진을 확보 일류동국에 걸맞은 교세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동국은 어떠한가. 교수는 당도 양심있는교수가 드물고 연구소는 당도 상당한 연구소는 드문 형편이다.

한대학원생은 「일제 식민지를 거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불교가 탄압당해왔으며, 총칭 학인인 본교가 철학계원 원인이사로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총단의 비주체적 모습과 실상상상으로 총단내부의 분규로 몇몇만 자리매김을 해오지 못한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동국학동의 쇠신을 유도하려면 먼저 학교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교 건학이념인 「대중적이고 민족적인 불교의 구원」이라는 명제처럼 「민족중흥」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중요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인적구조, 물적구조의 혁신화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동국학동의 쇠신 가능하리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개교 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동국은 가시적인 안일한 민족에 머무는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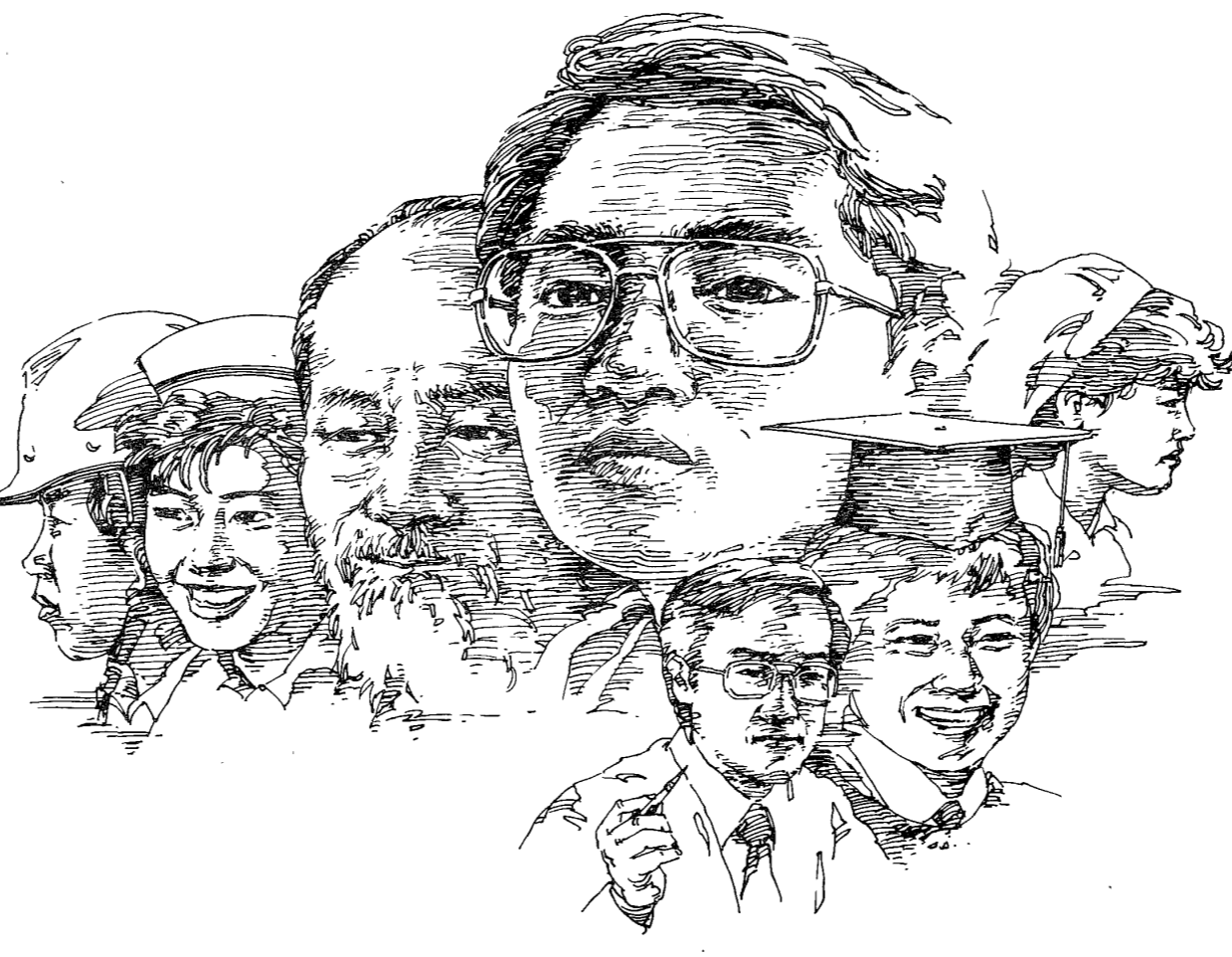
동국학동은 「민족의 혼」과 일치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보이는 내태하고 무력한 불교의 모습이 참모습이 아닐까. 자각하고 총단, 재단의 반성을 촉구하여 함께 진작하여 일어나자.

연구소의 경우는 그 수에 있어 21개교 타대학에 비해 결코 적은편은 아니나 실질적인 연구성과나 지원문제에서 볼 때 불교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등 몇개 연구소를 제외하면 간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새마을연구소와 같은 응용연구소가 유신이라 여겨질 존재하며 정부유학의 가능성을 갖는 연구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던가, 공간행정연구소와

시선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사회각처에서 하나의 목표, 다름은 이상실현을 위해 자신의 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공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느 한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 안정과 단결로 성숙되어진 나라, 이념과 분열을 초월한 인류사회 이는 우리의 시선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지로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때 우리모두의 시선은 하나의 응집된 결정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 애드젠이 하는 일
- 대학신문 광고대행 ●대학홍보사업
- 대학문화 학술지원 사업
- 광고점보 발간 ●출판, 제작사업

ZEN ADVERTISING INC.
서울 종로구 윤니동98-78(가든타워10F)
TEL: 741-1661/2, 2185/6 FAX: 744-8973

민족문화추구본뜻'소영웅주의, 외곽은 시대에 역류

본단 45년! 길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북한!

심없는 작가지 양심에 따라 결행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국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에 술언채단의 회담을 빠른시일 안에 개최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의 예격히외보대로 이적 집합 활동자가 결코 작용될 수 없으며 정권유지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국가보안법위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작가회담과 관련한 북한측의 서신을 통일원이 중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없이 대표단을 사법처리하는 등의 형태도 정부당국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민간차원의 남북문화교류목적에 모두 공감

을 작가지 양심에 대의에 증실한 황석영 씨가 약 1개월간의 방북을 마치고,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가운데 앞으로 그의 귀국을 전후해 또 한차례의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 정부는 이미 귀국한 문익환 목사간첩혐의를 덮어씌워구속했고 황석영씨 역시 구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족문화예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서 채택하였다. 7개항의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조국을 자주통일화적으로 민족 대단결 의의에서 통일하기 위한 민족적 유대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황석영씨 방북의 영향



민족문화예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서 채택하였다. 7개항의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조국을 자주통일화적으로 민족 대단결 의의에서 통일하기 위한 민족적 유대에 이바지한다. 둘째, 민족 문화예술의 통일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 문화예술인들이 정책,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업을 추진한다.

황석영씨의 방북사실이 확인되자 정부와 제도언론들은 「소영웅주의」 운운하며 그를 배도했다고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언행으로 볼때 그의 결단이 결코 무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황석영씨의 북한방문은 남북문화교류 및 자유로운 상호방문의 길을 먼저 몸으로 실현하고 전 민족예술인들의 민족문화 민족예술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대변한 것이다.

세계, 북에서 창작된 문화 작품들과 남에서 창작된 진보적 문화작품들을 합본·출판·보급하며 점차 정기간행물로 전환한다. 넷째,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악·미술·연극 등 다른분야도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다섯째, 남북문화예술인들이 공동으로 합동공연, 합동전시회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 여섯째, 이상의 사업을 적

정확히 허구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현정부의 통일외치는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현실대를 이를 수 있을만큼 확고하게 자리잡은 민족문화, 나아가서는 민족예술을 추구하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황석영씨의 결단에 공감하고 있는 이상 그의 방북은 역사적 평가의 함계 앞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황석영씨의 방북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를 이반사건을 빌미로 남북작가회담대표인 시인 고은씨를 구속하고 작가지의 민예추진·전민련등 재야단체의 불법수색과 출판인등의 내거구속등 계속적인 탄압을 자행하고있다. 그러나 문단에서는 황석영씨의 방북은 민간차원의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황석영씨의 방북사실이 확인되자 정부와 제도언론들은 「소영웅주의」 운운하며 그를 배도했다고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언행으로 볼때 그의 결단이 결코 무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의 방북 이후 민족문화작가회의와 민예총에서 발표한 황석영씨 북한방문 지지서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 성명은 황석영씨의 북한방문은 「개인적결단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 전 민족예술인들의 의지를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며, 그의 토론 결단에 깊은공감을 표해왔다」며 「남북문화교류와 자유로운 상호방문의 길을 먼저 몸으로 실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외치를 전세계의 양식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알리고자 결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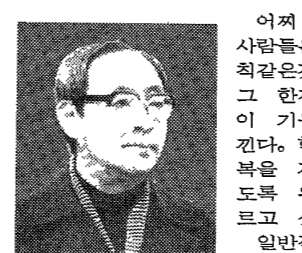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황석영씨의 이번 방북은 평소 그의 소신을 사

달하나 가장 자리를 즐긴다



金長好

<사법대교수·총서시가문>



어제 된 생인자 사람들은 어떤 구절같은것이있으면, 그 한계속으로 들어가는것을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라는것은 완전히 어울려줄지도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달나라가 가장 자리를 즐긴다.

서 비롯된 스스로의 허구성을 드러낸 본보기이다. 민족문화이 흐름의 대세임을 확인한 이상 정부도 황석영씨의 방북을 계기로 더 늦기전에 남북작가회담의 성사를 위한 끈질기게 동참해야한다.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러한 황석영씨의 순수한 동기를 모를리는 정부당국이 본단의 비극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통해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 문화예술인들은 당국의 북방

이 소 리

<민족 문화 작가회의 실천위 기사·시인>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이 다르다. 길쭉한 일 뚝뚝인, 뽀나바귀같이 생긴 잎사귀, 작은 고사리나 이끼, 마구 헝클러진 채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산은 더러운것을 지저분한것도 잘 가려주고 덮어준다. 나뭇잎, 풀꽃들이 색이 없어진다면 산속은 오히려 더 공기가 맑다. 아아, 새소리가 숲속의 공기를 더 맑게 해주는 것이리라.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생활의 활력소

산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산은 위엄과 포용력 일깨워 주는 교사

동약장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시련」공연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동약장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시련」공연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동약장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시련」공연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동약장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시련」공연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동약장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시련」공연

「시련」공연

「서풍 짜리...」공연

「서풍 짜리...」공연

「불감증」공연

「불감증」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지젤」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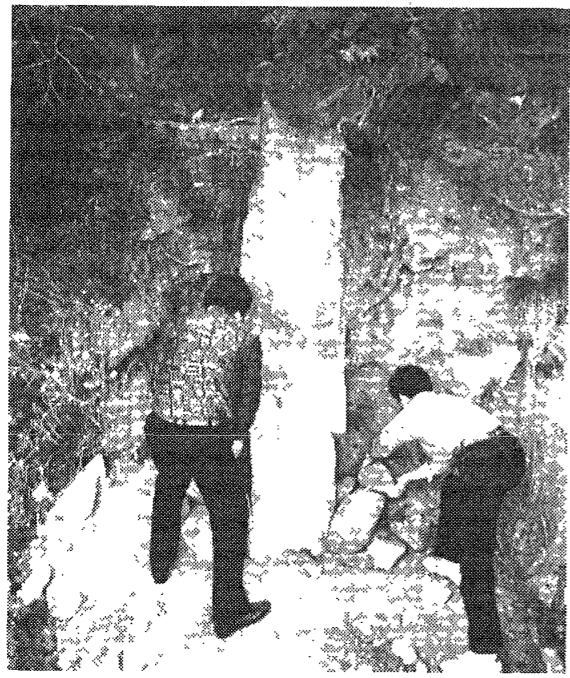
「지젤」공연

「지젤」공연

국내 最古 가야비 발견

지난4일 金相鉉·金英吉교수팀이 합천서 발굴 서기 4백년 추정...학계 비상한 관심 모아

경주캠퍼스 학술조사단의 金相鉉·金英吉 교수팀이 지난 4일 경남 합천에서 국내 最古의 가야비 발굴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고고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캠퍼스 학술조사단 (단장=金相鉉·金英吉교수)이 지난 4일 국내 最古로 추정되는 가야비를 발굴했다

60cm 너비 55cm, 두께 30cm의 화강암으로 己亥年(1939년) 또는 서기 435년(신라 納賢王 17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학술연구비 지급 李昌培·鄭用吉·朴仁國교수

개교 83주년 기념 「제 6회 특별학술연구비」 수상 대상자로 인문과학부 李昌培(영문학·대학원장), 사회과학부 鄭用吉(정치외교), 자연과학부 朴仁國(농생물학) 교수로 각각 결정됐다.

위 교수들의 각각 수상처에서는 「T·S 엘리먼트 연구」 「분단국통일론」 「Interrelationship Between Unclear Histories」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주 동연 회장 선거 25일 실시

경주캠퍼스 89년 동아리연합회 회장선거가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각실(도서관 4층)에서 실시된다. 임기를 보면 후보자들은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10개 이상 동아리장추천지장서 1부와 입후보자 경력서 1부를 제출하여 동연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 고비의 서체는 廣開土王碑(서기 414년), 中原高句麗碑(5세기), 冷水리 신라비(443년)와 유사하며 제 1행 끝의 「干支」란 관동명은 지난 달 발견된 迎日 冷水리 신라비 전면의 「本郡」출신 2명과 상년의 「村主」 1명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干支」는 「庚子年」에 의하면 일급왕자의 훈이 「고추」로, 宋書 「百濟傳」의 「羅古支」, 신라왕 가운데 「唐西干」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추정돼 가야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석이 발견된 가야비 앞에는 최근 합천캠퍼스지역 발굴조사결과 대가야의 중심인 고령에서 토기가 집중 출토되고 있고, 인근 야마로면 일대는 대가야 시대의 철기를 생산하던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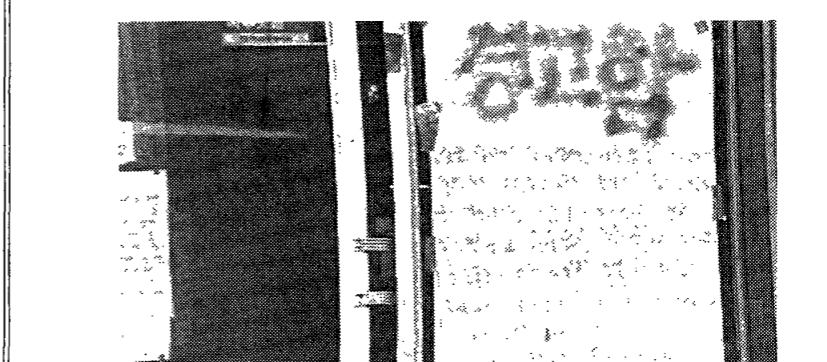
이 비석에 대해 金相鉉 신라문화연구소장은 『이러한 상황들로 볼때 가야비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진한 가야비 연구에 관한 단서가 될것임은 물론 신라와 가야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賈刀干支의 九干의 존재로 보아 초기의 관동은 신라와 비숙족들이 주로 주조하고 있었으며, 이 비가 발견된 곳이 옛 가야지역과 건립연대가 서기 435년, 495년으로 추정할때 고령의 대가야가 멸망한 시기가 서기 562년이기에 가야비일 가능성이 더욱 높게 보이고 있다.

학생회관 수색 지난 30일 경주서

경주캠퍼스 학생회관을 지난 30일 오전 3시 30분 경 주경철서 소속 정사복검열 3백여명이 일제 수색했다. 이날 수색은 동아리에서 연 락기를 맺고 있는 「경주서」, 「군 동문회」의 사전복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들은 총화사무실과 학생회관, 청소년연락처 등을 수색해 병 병 5백여개와 현수막 3장, 각종 서류, 주류, 담배 등을 압수했다.

이때 학생들은 『학내에 해 질 녘에 불을 켜고, 불이 번지는 학생운동의 전진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동국인의 모습실종(?)

학생회관 현관앞에 이새 대 자보가 나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촌연회가 지난 7일 봉축제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동아리방에 무단 출입하여 위의 내용들을 훔쳐갔다 내용: 50여개의 동아리방이 밀집

제27회 전국 고교문학공쿠르 盛了

시부 현석훈·시조부 김병수씨가 장원

「개교83주년 기념 및 동대신문 창간39주년 기념 제27회 전국 고등학교 학생문학공쿠르」가 본사 주최로 지난 6일 오전 11시 동국관 L101, L212, L213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李鍾冠총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9명과 예선 통과한 1백38명의 고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L101세미나실에서 개최식을 가진후 경연에 들어갔는데 李鍾冠은 화합사를 통해 『동국문학은 그동안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배출하였으며 오늘날의 행사가 그 일환으로 동국문학을 이룩해갈 인재들, 마련하는 길이다』는 말을 했다.

90주년 사업에 이견 동발위 각 대표자 회의

「동국발전위원회(이하 동발위)」가 지난 3일 오후 3시 金相鉉(철학) 전총장, 金榮雄(행정학) 기획조정실장, 이승민(영문 4) 학자추진위원장 등 각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추진위원회에서 열렸다. 이회까지 4차례 걸친 동발위 준비회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안」을 확정·심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는 金相鉉

류창호군 석방투쟁 잇달아 각단대별 파업·노정권퇴진투쟁 전개

경주캠퍼스 「동의대 살인진압규탄 및 류창호군 석방투쟁 7천동국인 결의대회」가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학생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리에서 열렸다. 애국절사대인 류춘복(고미사 3)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대회는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및 각단대별 파업결의 및 취지발표 등으로 출정식을 가진 뒤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총학 사

회부장 강양운(의학 1)군은 동의대 진압과정 진상을 보고하며 『중적으로 진정들을 죽음의 장으로 내몬 노태우 군사파쇼와 그를 사주하고 있는 미제를 미워해야하며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문대학생회장 이재근(국사 4)군은 『류군의 석방 및 노태우정권 타도 투쟁의 확실한 전개를 위해 총파업으로 하나가 될때』라고 주장했다.

의대 상형선명, 상경대학생회장 이상복(무역 4)군의 상경대대입장발표, 시국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애국절대인 김동선(중문 4)군은 『민주제이인사를 구속하고 한겨레신문에 대한 언론탄압판만 아니라, 노동운동까지 공권력으로 짓밟는 현정권의 퇴진운동을 과감히 전개할것』이라고 말하고 『7천동국인의 대동단결로 류창호군을 석방시키고 아울러 반민족 악법철폐 투쟁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거교적 동국발전기금 모음을” 대학원 학생회, 「전 동국인에게...」성명 발표

서울캠퍼스 대학원 학생회는 「동국발전을 염원하며 전 동국인에게 드리는 긴급제언」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 3월 28일 대학원장실 접견동선에 들어갈때 요구했던 학교의 예·결산 전면공개, 재단전입금의 지원반안제시, 등록금 결정시 학생대표와 합의할것 등 3가지 요구 사항이 어느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안없는 등록금동결을 결정하는 것은 흡사 6·29항복선언과 같은 허구성을 드러내는것이라는 내용의 이성명서는 환불받게될 등록금인상액을 동국발전기금에 기부하고 앞으로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교수, 직원, 재단, 동문, 학교 동국은 물론 전민들에게 우리의 발전의지를 전명하고

거교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대대학 교수회와 직원노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지인노조의 경우,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성명서의 1백여개 항목을 동국발전기금에 기부하고 동국발전기금에 관한 준비모임을 활발히 갖고 있다.

교과서 반항

총 7 과목 2 천 2 백 권 서울캠퍼스 출판부는 1 학년들의 교과서 반항에 대한 환부를 지난 달 21일부터 28일 까지 8 일간 실시, 총 7 과목 2 천 2 백여권이 반항되었다. 과목별로는 영문영문과서 5 백 20, 철학개론 4 백 50, 불교론과서 3 백 50, 불교학개론 3 백 20, 국어작문 3 백 20, 국어 1 백 90, 영어 20여권 등이다.

<p>동국 발전은 어디에</p> <p>○...3달여 지속된 신입생 등록금(입학금포함) 인상분 환불이 지난 달 28일 토 타결됐으나, 「동국발전」을 무시한 개인적 소위싸움으로 그친것같아 일말 쓸쓸한 느낌이 든다.</p> <p>▶초 인상분을 환불받아 학교발전에 쓰자면서 환불 투쟁을 전개했는데 과정상 1학년 자치협의회의 의견에 적극 수렴한다더니 결국은 「개인돈은 개인에게로」</p>	<p>가금 모금등 동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p> <p>동 노력을 이겨내도 고 심해는 것이 아닐는지요?</p> <p>작용과 반작용</p> <p>○...요즘 학원가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화염병을 싸우며 하겠다고 단 단히 버려진 있는 사람들이 있다</p>	<p>석상대식 「최후탄」 文化의 침산과 군사문화의 단절없이 어찌 화염병만을 맞아 리오!</p> <p>참교육 세척수</p> <p>○...라든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 수많은 신사 체인이 떨어 아닌 일이 발생. 지난 3일 교원노조전선 전진대회를 끝</p>	<p>생들의 참교육의 세척수(?)</p> <p>를 선사한 것으로 사보돼...</p> <p>온발공의 중간평가</p> <p>○...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중간평가를 피하고 있다지만 온발공에서는 우리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의 중간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아야할듯.</p> <p>최근 회내에서는 연일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으나 그때마다 어김없이 총인원의 절반도 모이지 않아 가혹(?)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p>
--	--	--	---

제갈길만 찾으면 동국발전은 언제쯤...

의 기치아래 소위투쟁을 힘내... 시하려는 각학교 교장·교감들이 본교 후원에 파리 매처럼 모여 있는게 느닷없이 밟수위질어쓰고 속차리라고 호스 물이 뿌려졌다고 제도교육에 찌든 때를 갖기 벗기려는 사발매

요즘같이 바쁜 세상- 꼭 필요한 것 세가지!

국민카드와 친해질수록 생활이 편해집니다.

- 어디서나 통합니다. 현대, 레스토, 백화점, 상차는 주유소까지 - 국내 최대의 80,000여 개점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카드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 마음대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 사용할 때는 3~24개월까지 원하는대로 할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월 예산에 맞춰 나누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 없습니다.
- 물론, 현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국민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십시오.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카드분실사고, 이제 안심하십시오. 분실신고 후 사고금액 전액을 제외가 보상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 15일 이내의 사고금액도 200만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해의출점이 잦은 분은 「국민마스타드」로 하십시오.

국민카드와 친해질수록 생활이 편해집니다.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동소문로 10번지 (관광공사B/D) 전화: (02) 754-2000 (대)

